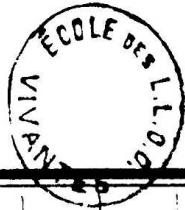


마가의전영모음본의문서연구

S. D.

11

76



마가의 전훈복음서언히

데일장

- 상데의 아 들에 수쓰 크리스도스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二

선지자의 기록훈바에 날너스되보라 내가 나의 스자를네압희보내
 여씨네도를긋초게하리라 훈말파긋치 三 들에 사람의 소리잇셔웨
 처닐으 디주의도를긋초아그길을곳게훈다하더니 四 요한네쓰가
 들에서 밥테슈마를베푸러뉘웃쳐곳치는 밥테슈마를전하야하여곰
 죄의샤함을엇게하니 五 원유디아쌍과다못에루살넴사람이다와
 서요르단하슈에서요한네쓰의게 밥테슈마를밧고 각각제죄를즈복
 하더라 六 대더요한네쓰는약디의털을넙고허리에가죽씩를씩고
 먹는거손황총과들살이러라 七 반포하여글으 디내뒤에훈사람이
 오되나보다나흔지라곳굽혀그사람의신들메푸는소임도내가감
 당치못할거시며 八 나는밥테슈마를물노씨너의게주거니와오직
 이사람은밥테슈마를성령으로씨너의게주리라하더라 〇 九 이 때



예수쓰가 샅릴리아의 나저레드로 브터 오샤 요르단에서 요한네쓰
 의 계 밧테 슈마를 밧으시고 드디여 물에나 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
 령이 합도 곳치 그 우희 강림 하심이 보이며 또 흐하늘로 브터 소리
 잇서 날으 디 너는 나의 사랑 하느 아들 이니 나의 갓 너 하느자 라 하
 더라 〇 성령이 즉시 인도 하 여 들노 가니라 〇 거긔 셔 들에 처 하 신
 지스 십일에 사탄의 계 시험함을 당 하시고 들 짐승과 곳치 계 시 매 하
 늘스자 | 시 좋 하 더라 〇 요한네쓰 | 갓 짐을 당 흐 후에 예수쓰 | 샅
 릴리아에 니르러 천국의 복음을 전 하 야 〇 날으 시 디 거 약이 임의 니
 르러 고 련국이 갓가 온 지라 너 희는 맛당이 휘 웃고 곳쳐 복음을 밧을
 지어 다 〇 예수쓰 | 샅릴리아히 변에 행 하 시 다 가 씨 몬이 제 형 안 드
 레 아 스 로 더 부 러 바 다 희 그 물 질 함을 보 시 니 이 사 름 들 은 어 부 | 라 〇
 예수쓰 | 날으 샤 디 나 를 좃 차 면 나 | 장 찻 사 름 을 낚 는 어 부 | 되 게
 하 리 라 하 시 니 〇 그 사 름 이 즉 시 그 물 를 브 리 고 예 수 쓰 를 좃 차 니 라

十九 여기로 좃차 조곰더 가서 제비되오스의 아들야고부와 그형요한
 네쓰로더부러 비에셔 그물을 기음을 보시고 二十 예수쓰 | 드되여부
 르시니 요한네쓰 | 그아비제비되오스는 품군과 又 치비에잇스라
 하고 예수쓰를 좃차니라 二 그사람들이 가펠나움에나아가즉사사
 벳트일에 회당에 드러가샤 三 르침을 펴시니 四 그 五 르치심이 마치
 집권흔이 又 고션비들과 又 지는아니하니 이러므로 못사람이 그교
 를괴이히 녀이더라 六 회당에게실제흔 못쓸사귀들닌 사람이 잇셔
 셔 七 웨여왈아셔라나 자레트사람 예수쓰야 우리너와 무슴샹관이
 잇관되너 | 와셔나를 패망케 하는다 나는네가 된줄아는 나이에 샹
 데의 성흔자 | 니라 하고 놀 八 예수쓰 | 물니 쳐글으샤 되 입을 봉하고
 그 사람의 게셔나가라 하시니 九 못쓸사귀 그 사람을 오그려 썰려 놓
 코크게 소리를 웨치고 나가니 十 못사람이 되 경하고 이 샹이 녀이며
 서로 무려 글으되 이는엇진 일인고 이 무슴새로 온교 | 나대 데그 위

권으로 썬 못 썬 샤귀라도 명하시매 샤귀도 순종하는도다 하시여 ^{二八} 드
 티여 이 성명이 팔릴 리야 스방에 진동하시더라 ^{二九} 임의 회당에서 나
 아 오샤 즉시 야고부와 다못요 환네쓰와 흠씩 씨몬과 밋안드레아 스
 의 집으로 가시니 ^{三〇} 씨몬의 처모가 열병이 드러 누엇는지라 후이 예수
 쓰씩엿즈온대 ^{三一} 예수쓰 | 그 압희 오샤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열
 병이 즉시 물너가는지라 그 지어미드 티여 시종하시더라 ^{三二} 더 무려히
 질뻘에 병들고 샤귀들난쟈들을 드리고 예수쓰씩 나아오니 ^{三三} 원고
 을 이 문에 모히엿더라 ^{三四} 예수쓰 | 허다한 병인을 곳쳐주시며 또 환
 모든 샤귀들을 쫓츠시되 샤귀들노하시여 곧 말을 못하게 하시니 대더
 샤귀들은 알미러라 ^{三五} 이튼날 아침에 둔하시여 예수쓰 | 내려나들
 나가샤 거괴셔 괴도하시더니 ^{三六} 씨몬과 밋치잇던쟈 사롬들이 뒤홀
 조차 ^{三七} 맛나매 엿즈와 글오티 모든이 너를 좃는다 하시니 ^{三八} 예수쓰 |
 널너 글으샤 티우리가 갓가온고 을에 가서 내가 마르치려하시니 대

더나는 이 일을 위하야 왔노라 하시고 ^{三九}예속쓰 | 갚릴 리아스방에
 두루하야 회당에서 ^{四〇}러치며 또 혼샤귀를 쫓차시더라 ○ ^{四十}훈문등
 이나아와근구하야며 썩러엿즈오대너 | 만일 즐겨하려하실진대능
 히나를 썩게하리이다 ^{四一}훈디 예수쓰 | 불앙이 녀이샤 손을 펴
 샤문저글으샤 더나는 하고져하노니 너는 썩엇홀지어다 ^{四二}말슴이
 못치며 즉시 문등병이 업서지고 그사름이 썩엇하야지니 ^{四三}예수쓰
 | 엄히병게하야보네시며 ^{四四}닐너글으샤 더너 | 삼가사름의게말
 하지말고다 만몸소가셔스제의게 퇴이고 또 혼내썩엇하엿심을 위
 하야모세가 명훈거슬드려여러사름의게 증거가 되게하라 ^{四五}그리
 하야도그사름이나가 전파하야며 이 일을 즈랑하니 예수쓰 | 완연이
 성에드러가지 못하시고 이에 밧것들에 계시나사름들이스방으로
 조차나아오더라

데이장

- 수일을 지나 예수쓰 | 다시가 펴나움에 나아가시니 사름

가나아와근구하야며 썩러엿즈오대너

삼

들이 그 집에 게심을 두고 二 즉시 여러 사름들이 모혀 들매 용신할 틈이
 업고 문전에 논더 옥용신할 디아 조업시 되니 예수 쓰 그 사름의 게
 도를 강론할 실시 三 혼풍병으로 반신불슈 혼쟈를 네 사름이 메여 오
 니 四 사름이 만흐므로 갓가이 갈수 업스매 집을 응을 쫓고 구역을 낸 후
 예풍병든 사름 누은 상을 우흐로 부터 다라느 리니 五 예수 쓰 | 그 밋
 음을 보시고 풍병인의 게 널너 글으샤 디아 들아 네 죄를 샤하노라 하
 시니 六 었던 선비들이 거괴 안젧다가 심중엿 7 만이 생각하디 七 이
 사름이 었지 이긋치 설만하노상 데 외에는 능히 죄를 샤하리오하니
 八 예수 쓰 ! 심중에 밋셔 이러케 9 만이의 론함이 잇슴을 보시고 드
 디여 널너 글으샤 디너의 중심에 었지하여 이 일을 의론하느냐 九 풍
 병인을 향하여 널으 디네 죄를 샤하엿다 흠과 쓰너 러나 네 평상을 가
 지고 든 나라 흠이 었던 거시 더 쉬오나 十 다만 너로하야 곰인즈 | 계
 상에 잇셔 죄를 샤하느 권이 잇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고 풍병인 드

려닐너골으샤되^{十一}나 | 너드려말하노니너러나평상을가지고네
 집으로도라가라하시니^{十二}그사물이즉시너러나상을가지고모든
 사물의압희셔나가매모든사물이놀나고이상이너이며상대씩찬
 양하야닐으되우리이제서지이곳튼이잇슴을보지못하엿노라하
 더라○^{十三}예수쓰 | 다시나가샤히변에너르시매뭇사물이다예수
 쓰씩로나아오니예수쓰 | 마르치시더라^{十四}지나시다가알피오쓰
 의아들네뵈가세بات는관에안젧심을보시고드되여닐너골으샤되
 너 | 나를조차라하시니네뵈너러나즉시좃차니라○^{十五}예수쓰 |
 네뵈의집에안자잡스오실식여러세리들과다못죄인들이예수쓰와
 밋그데즈로긋치안젧시니대개그런사름들이만히좃침이러라^{十六}
 선비와바리새오스들이그세리와밋죄인으로더부러흐가지음식
 흠을보고그데즈드려닐너왈더이가엇지하여세리와밋죄인으로
 더부러음식을긋치하느뇨하거늘○^{十七}예수쓰 | 드르시고닐으시

디 성하고 건장한 자는 의원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병든 자라야 쓰
 는지 내가 오기는 의인을 부르려함이 아니오 이에 죄인을 불러 누우
 처 곳치게 함이니라 ○ 무릇 요한네 쓰데즈는 바리새오스와 곳치
 절곡하더니 후이 예수 쓰씩 나아가 엿조오디 요한네 쓰의 데즈와 밋
 바리새오스들은 절곡하거늘 오직 너의 데즈는 절곡을 아니하니 엿
 지함이뇨 예수 쓰 닐너 글으샤 디새로 장가드느자 | 잇스니 장
 가감을 치하하느자 | 엿지능히 먹지 아니하니 오새로 장가드느자
 | 잇셔 곳치 잇슬 때에 는디 | 능히 음식을 금치 못할 거시오 다만
 장리 날에 장가든 자 | 리별하고 같닐 때에 는반드시 음식을 금하리
 니 새뵈로 쓰낫은 옷을 김지 아니하느거 손재 거시 낫은 거슬 당과
 여더 상해올가 두려워 함이오 또 새술을 낫은가 족부디에 담지
 아니하느거 손재 술이 부디를 찌어 술이 식고 부디 더히여 질가 두려
 워 함이니 오직 새 줄은 새 부디에 담을 거시니라 ○ 못참사 밧트날

예수 쓰 | 밧가온티를지날시그데즈 | 둔닐썸에이삭을쌌더니
 바리새오스들아드타여닐너골으디더사롤이사밧트날에맛당이
 핏치못홀일을핏핏은엇지핏이뇨 예수 쓰 | 닐너골으샤디싸빛
 드 | 좃는사롬으로더부러지치고비곱홀썸에핏핏던일을네가놉
 지못핏였느냐 이사롬이아비아다 | 제스쟝되엿실썸에상대의
 궁에드러가압핏공양핏는썸을먹고또핏드리고간쟝를주엇시니
 오직이썸은제스외에사롬은가히먹지못핏는거시라핏시고
 닐너골으샤디사밧트날을사롬을위핏야마련핏이오사롬을사밧
 트날을위핏야마련핏이아닌거시니 이러므로써인즈도또핏사
 밧트날의썸 | 되는니라

데삼쟝 예수 쓰 | 또회당에드러가계시매사롬이잇스되그핏손
 이조막손이된지라 중인이사밧트날에곳쳐주나아니핏나엿보
 와의스가송스코져핏더니 예수 쓰 | 조막손이드러닐너골으샤

디 흐가 온 디 니 러 서 라 호 시 고 ^四 여 러 사 름 드 러 말 습 호 여 글 으 디 사
 밧 트 일 션 을 힘 힘 과 악 을 힘 힘 과 인 성 을 구 호 는 것 과 인 성 을 살 호 는
 거 서 어 느 거 시 당 연 호 리 오 여 러 사 름 이 무 연 호 여 잇 스 니 ^五 예 수 쓰
 노 호 샐 여 러 사 름 을 도 랑 보 시 니 그 밧 음 들 이 잔 이 힘 을 근 심 호 심
 이 라 그 사 름 드 러 말 습 호 여 글 으 샐 디 네 손 을 폐 라 호 시 니 드 디 여 폐
 매 손 이 즉 시 나 아 성 호 손 과 맞 호 니 ^六 바 리 새 오 스 사 름 이 나 와 해 로
 데 쓰 의 무 리 로 더 브 러 호 가 지 로 예 수 쓰 치 기 를 썬 호 되 장 찻 었 지 호
 여 멸 호 고 호 더 라 ○ ^七 무 릫 예 수 쓰 ! 그 데 즈 와 꺾 지 바 다 로 갈 시 히
 다 호 사 름 들 이 샐 릴 리 아 로 서 도 브 러 오 며 이 유 디 아 로 서 도 브 러 오
 며 예 루 살 념 으 로 서 도 브 러 오 며 ^八 이 두 밧 로 서 도 브 러 오 며 요 르 단 밧
 그 로 서 도 브 러 오 며 또 호 두 로 쓰 와 다 못 씨 돈 의 속 호 사 름 들 도 그 힘
 호 시 는 바 를 뜻 고 또 호 허 다 호 사 름 들 이 잇 서 나 아 오 니 ^九 예 수 쓰 !
 그 데 즈 를 명 호 샐 적 은 비 를 준 비 호 고 기 드 라 호 시 니 사 름 이 만 호 고

로써 당신을 옴위 흠을 면하라 흠십이라 + 대내 예수쓰가 사름을 낫
 게 하기를 임의 만히 하고로 무릇 질병잇는 자는 다 꺾근 하여 문지려
 하더라 + 샐기 혼 번 보고 곳 그 압희 부복 하여 불너 글으되 너는 이에
 상대의 아들이라 하니 + 예수쓰 | 엄히 경계 하여 하여 금전 파치 못
 하게 하시더라 ○ + 디여 산에 올으샤 하고 저 흠십을 쓰라 써 사름을
 부르시매 사름이 곳 나가니 + 이에 십이 인을 세워 하여 금그즈기
 와 곳치 하여 가히 보내여 교를 배플게 하시고 + 또 병을 곳치며 샐
 를 씻는 권이 잇게 하시니 + 세몬과 또 글온 베투로 쓰라 + 또 제비
 디오스의 아들이고 보스와 야고보스의 형요한네쓰 | 잇시니 이 두
 사름은 또 일흠 하여 글으샤 디보안엘게 쓰라 하니 번역 할진디 곳되
 스라 흠일너라 + 또 안드레아스와 펠답보스와 발도로미오스와 도
 마스와 알피오쓰의 아들이고 부와 밋티야요스와 다못가나아니의
 씨몬이며 + 또 이사가리오트리의 아우다쓰니 곳 예수쓰를 판자 | 라

○^{二四} 임의 집에 드러가매 못사름들이 다시 모화그떡을 먹이기에 겨
 을 치 못하게 하니 ^{二五} 그 친속이 듯고 곳나와 구코져 하야 말하야 글으
 디더 ^{二六} 밋쳤다 하며 ^{二七} 잇서 예루살렘으로 브러와 글으 디더
 는 벨세불의 빙흔박되여 귀왕을 빙자하야 써츠키 한다 하니 ^{二八} 예수
 쓰 ^{二九} 부르샤 비유를 베퍼닐너 글으 샤 디사탄이 엇지 능히 사탄을 축
 흐리오 ^{三〇} 또 흔만일집이 스스로로는 호여 징흔즉 곳나라히 능히
 서지 못하고 ^{三一} 만일집이 스스로로는 호여 징흔즉 곳집이 능히 서
 지 못하고 ^{三二} 만일사탄이 내려나 스스로로는 호여 경흔즉 능히 서
 지 못하고 반드시 못기에 니를 지라 ○ ^{三三} 사름이 능히 용자의 집에 들
 어가 그물건을 겁탈할지 업습은 반드시 몬저 용자를 결박할연 후에
 그 집을 가히 겁탈할지라 ^{三四} 나 | 진실노 네게 날으는 니 무릇 죄와 다
 못더러 온 말노 사름이 써더러 이는 자는 그 사름을 가히 샤하려 니와
^{三五} 오직 성신의 깨더러 이하는 자는 기리샤를 엇지 못하고 반드시 영

형에 두리라 하시니 ^三 모든 이샤 귀를 접하시니 ^四 그러케 말씀하시니
 ○ ^三 때에 그대 형이 그모진으로 더 브러나 르러 밧기서 샤름
 을 보내여 나와 브르라 하시니 ^三 모든 이 두루 안젓는 디 후이고 하시야
 글으 디네 모와 네데 형이 밧기와 너를 찾는 이다 ^三 예수쓰 | 디 답하
 야 글으 샤 디 었던 이 나의 모친이 되며 나의 데 형이 되리 오 하시고 ^三
 드 디 여 두루 안진 자를 도라 보시고 글으 샤 디 나의 모와 나의 데 형을
 보라 ^三 대개 상 데의 뜻을 좃는 자 | 곳나의 데 형이며 나의 즈미며 곳
 나의 모친이라 하시더라

데 스 장 | 예수쓰 | 다시 바다 가 회셔 가 르 치실 식 모든 이 모혀 오니
 더 | 바다 회셔 안 지시고 모든 샤름은 바다 흘 연 하시야 언덕에서 니
 예수쓰 | 드 디 여 여러 뜻 초로 비유 하시야 가 르 치실 식 날 너 글으 샤 디
^三 드 르 리 썩 우고 심으는 자 | 잇셔 나가 씨를 썩울 식 ^四 썩울 때에
 길 가 회 들 닌 거 손 공 중에 새 니 르 러 다 먹고 ^五 돌 작 밧 토 박 흘 디 셋 천

거 손 벗치 쯔 이 면 흠 이 겁 지 아 님 으 로 인 흠 이 나 ^六 날 이 나 셔 벗치 쯔
 이 면 썬 이 업 습 으 로 으 르 며 ^七 가 시 덩 불 가 온 디 잇 시 매 가 시 니 러 나
 그 리 위 결 실 치 못 하 게 하 며 ^八 옥 토 에 세 치 매 발 하 야 곳 기 는 니 결 실
 이 삼 십 비 도 되 고 룝 십 비 도 되 고 백 비 도 되 는 니 라 ^九 또 닐 너 곶 으 샤
 디 으 르 귀 가 잇 셔 듯 는 쟈 는 맛 당 이 드 를 지 니 라 ^十 예 수 쓰 | 혼 자 처
 하 실 때 에 에 워 잇 는 이 열 투 문 도 로 더 브 러 비 유 로 써 못 즈 오 니 ^{十一} 예
 수 쓰 | 닐 너 곶 으 샤 디 상 데 나 라 겁 혼 쫓 은 너 희 의 게 알 게 할 거 시 오
 오 직 외 인 의 게 는 비 유 로 써 말 하 리 니 ^{十二} 비 룝 보 아 도 보 지 못 하 고 드
 러 도 듯 지 못 하 야 그 옴 겨 저 샤 흠 을 엇 지 못 할 가 저 허 흠 이 라 하 시 고
^{十三} 또 닐 너 곶 으 샤 디 너 | 이 비 유 를 아 지 못 하 는 나 장 찻 다 른 비 유 를
 엇 지 알 니 오 ^{十四} 썬 우 다 흠 은 도 를 썬 움 이 오 ^{十五} 길 그 희 썬 우 다 흠 은 곳
 썬 우 는 바 의 도 를 사 름 이 드 르 매 사 탄 이 드 디 여 니 르 러 그 므 움 에 썬
 운 도 를 잡 아 썬 아 스 리 라 흠 이 오 ^{十六} 돌 작 밧 희 썬 우 다 흠 은 곳 사 름 이

도를듯고 드티여 깃거 빛으나^{十七} 그러하나 안희셀이 업스매 또 혼잠
 간이니 도를 위하야 환난을 만나거나 후해하는디 밋쳐서는 드티여
 구의 흠을 불거시며^{十八} 가시덤불에 썩음은 곳사름이 도를듯되^{十九} 이
 세상에 생각과 다 못지물에 후하음과 밋모든물육이 드리그도를그
 리온즉 열미를결치 못하는니^{二十} 옥도에 썩은자는 곳사름이 도를듯
 고 밋으며 또 혼열미를결하기를 후삼십비나 후륙십비나 하는니라
 ○^三 또닐너골으디 사름이등을갓다가 말밋히나 후평상밋히 두겠
 는나 초티우희 두지아니하랴^三 대개 숨은거시 드리나 지아님이 업
 고 곱초인거시 드리나 지아님이 업는니^四 귀잇셔듯는샤는 맛당이
 드를지어다^四 또닐너골으샤디 맛당이 드른바에 삼갈지어다네 무
 슴량으로써 사름을헤아릴전디 곳장춧이량으로써너를헤아릴거
 시며 또 혼네 드른바에 셔장춧너를더 주리니^五 대개 잇는샤는 장춧
 줄거시오 잇슴이 업는자는그 잇던바를아올나 또 혼장춧썩아스리

라 ○ ^{二六}또 글으샤 디상 데 나 라는 사 례 이 씨 를 싸 희 둠 又 亨 여 ^{二七}일 야
에 자 고 니 러 날 스 이 에 씨 나 고 또 흥 길 되 그 사 례 이 그 그 러 흥 바 를 아
지 못 亨 는 니 ^{二八}대 개 싸 히 본 리 만 물 을 낼 때 저 음 에 삭 이 나 며 다 음 에
이 삭 이 되 며 후 에 이 삭 이 곡 식 을 일 우 는 니 ^{二九}열 락 열 때 는 곳 낫 슬 쓰
리 니 거 들 때 가 니 름 이 니 라 ○ ^{三〇}또 글으샤 디 우리 장 첫 엇 지 씨 상 데
나 라 흥 비 亨 며 또 무 슝 비 유 로 씨 비 유 亨 라 ^{三一}마 치 게 즈 씨 亨 나 흥 싸
희 씨 올 때 에 는 싸 우 헤 빅 가 지 씨 에 지 극 히 적 음 이 되 었 스 나 ^{三二}오 직
씩 운 후 에 자 라 면 모 든 나 물 에 셔 크 고 또 흥 큰 가 지 나 셔 공 중 의 새 가
히 가 지 에 깃 드 리 게 되 는 니 라 ^{三三}예 수 쓰 | 또 이 又 흥 비 유 로 씨 만 히
베 푸 러 모 든 이 의 게 도 를 亨 처 시 되 그 능 히 알 아 듯 기 를 쉽 게 亨 심 이
라 ^{三四}다 만 비 유 아 니 亨 시 면 말 슝 아 니 亨 시 고 흥 자 게 실 때 에 는 그 문
도 로 더 부 러 프 르 시 더 라 ^{三五}당 일 이 임 의 저 물 매 예 수 쓰 | 그 문 더 드
려 닐 너 글으샤 디 우리 가 히 더 언 덕 에 건 너 리 라 ^{三六}임 의 모 든 이 허 여

지매인호야비에게시니문도 | 흠씩갈식씩로적은빅잇셔긱치가
 더니^{三七} 풍랑이대작호며물결이뛰여비에드러긱득흔디^{三八} 예수쓰
 | 비뺏히게셔벼기호고지무시니문도 | 쉼우며또흔엿즈와글으
 디부즈야우리죽젯는디너 | 도라보지아니호시느니잇가^{三九} 예수
 쓰 | 니러나샤바름을물니치시며바다출향호샤글으샤디잔잔호
 라호시니바름이즉시긱치며이에크게평안흔지라^{四〇} 예수쓰 | 문
 도를닐으샤글으샤디너 | 엿지이긱치두려워호며너 | 엿지밋음
 이업느냐^{四一} 못사름이심히놀나서로닐너글으디이엿던사름이완
 디바름과다못물결이또흔순종흔다호더라

디오장

바다더편언덕게라세노쓰사름의싸희니르러^二 예수쓰

| 임의비를써나매샤귀를접흔사름이무덤스이로나와맛나니^三
 제가무덤스이에거호매사슬이라도능히미지못호니^四 대개져 |
 여러반착고와사슬노밈을보대사슬이저의게흔혀진바 | 되고작

고가 저의게 쓴 허진바 | 되여 못춤내 제어 흘수 업고 五 쥬야에 흥상
 뫼와 산에 잇셔 브르 지지며 또 흥돌노 썸스스로 상하 더니 六 멀니에
 수쓰를 뵈옵고 추창하 여 절하며 七 크게 소리하며 불너 왈 지극히 높
 흐신상 데의 아 들 예수 쓰야나 | 너와 더 브러 무슴상관이 잇습느니
 잇가나 | 상 데의 일 흥을 의탁하 여 네게 구하느니 나를 고롭다 말으
 쇼셔하니 八 대개 예수 쓰 | 일즉 이 날 너 글으샤 되너 | 더러 온 귀신
 이로 다 그 사람의 게로 나가라 하섯심느이다 九 이에 무러 글으샤
 되네 일 흥이 무어시뇨 되 답하 여 글으 되네 일 흥이 군이니 우리 들이
 만 혼연고 | 니이다 十 드 되 여 이싸 희 쫓차 내지 말아 달나 하며 十一 더
 괴 큰 도야 지뻘 가 잇셔 산에 갓가 이하야 먹더니 十二 여 러 잡귀 다 구하
 여 왈 우리 들을 보내 여 도야 지의 게 가셔 드러 가게 하 여 달나 하거늘
 十三 예수 쓰 | 드 되 여 허락하 시니 샤 귀 나가 도야 지게 드러 가니 이
 천이나 되는 썸 되야 지 언덕으로 닳고 바다 희 쫓여 드러 싸지거늘 十四

도야지를치던자 | 읍늬와촌으로드라고하니모든이나아가하는
 바를보려하여^{十五} 예수쓰씩나아오매몬져샤귀를점하여군이리하
 던자 | 안자옷슬납고즈약함을보고두려워하며^{十六} 보는재귀신을
 점흔사름을맛난것파쎄도야지일노써고하니^{十七} 모든이드되여예
 수쓰씩구하여그디경에쫓치시기를청하는지라 ○^{十八} 예수쓰 | 비
 에오르시니몬져귀신점흔사름이흔가지로가기를구하거늘^{十九} 예
 수쓰 | 허치아니하시고닐으샤되너! 집에도라가네천흔이의게
 나가주 | 엇더케네게하신것과너를불상이너임을닐어라하시
 니^{二十} 그사름이이에가데카볼닉쓰에잇서예수쓰 | 엇더하게저의
 게헝하시던거슬닐으니모든이신괴히너이더라^{二十一} 예수쓰 | 비를
 등시교다시그언덕으로건너시니모든이운집하여나오매이에바
 다그에게시더니^{二十二} 회당을맛튼야애로쓰라하는자 | 잇더니와서
 예수쓰씩뵈옵고이에발아래부복하여^{二十三} 군절이청하여글으되나

의어린것이죽기에니르렀니너와셔그우희손을덥혀하여곰낫
 게흠을엇게할진대반드시살니라예수쓰곳치가실시모든이
 용위하여죽치니때에흔지어미잇시되혈루흔제열두히라심
 히여러의원이고로온바되고또흔잇던거슬다히비하여유익흠
 을보지못하고증세극중하여예수쓰를드르매드덕여못사람
 을헛치고이르러뒤흐로조차그옷슬문지며골이디나다만그
 옷만그지면나흐리라흠이러니즉시혈루증이막히이고몸에잇
 는병이임이나흔줄을써드를지라예수쓰도즉시즈기로부터나
 물알으시고모든이가온셔도라보아골이샤디뉘내옷슬문졌느냐
 그문도엇조오디못사람이너를용위흠을보시거늘엇지닐
 샤디뉘나를문지느냐하시는니잇가예수쓰가이일을흔지어미
 를보려고돌나보시니아지어미차가흔거슬알고무셔워썰고와
 셔그압희업드러셔그아게모도참말노하니라예수쓰그계집

도려닐너골으샤되게집아네밋음이너를낫게하엿시니평안이가
 라비병이나흐라라^{三五}말씀할때에사름이잇셔희당을쥬장하논사
 림오로더브러골으되비썰이임의죽엇는지라스승님을슈고롭게
 흠이무엇하리오하거늘^{三六}예수쓰—그말씀을드르시고바로희장
 쥬장하논자드려닐너골으샤되걱정말고오직밋기만할또름이니
 라하시고^{三七}이에베투로쓰야고보쓰와밋야고보쓰의아오요한네
 쓰와외논다른사름이또로지못하게하시고^{三八}희당쥬장하논자집
 에니르러브르지지며동곡하며설움을이과지못함을보시고보시고
^{三九}드러가신후에그사름들드려닐너골으야되엇지브르지지며우
 고노노계집으희죽은거시아니라임의잠자는거시라하시니^{四〇}모
 든사름이웃거늘예수쓰—모든사름들을내여보내고계집으희부
 모의밋당신이드려온사름을드리시고계집으희누은곳의드러가
 셔^{四一}이에계집으희손을잡고져드려닐너골으샤되다리라구미라

하시니 번역할진대 계집의 히야 내명하시니 네이러나라 하시심이라
 계집의 히즉시이러나며 또흔거리든니니 대개제나히임의십이
 세라중인이크게놀나며이상이너이거늘 예수쓰엄히경계하시
 이일을사름으로하시여곰알나지말나하시고명하시밥으로써계집
 의히를주라하시니라

데류장 - 거괴를셔나고향에도라가실식데즈들이쫓더라 못참
 사밧트날이되여회당에게셔 마르치시니여러히듯고신괴히너여
 골의티이사름이엇지시러곰이러하시뇨티인바의슬기가엇지이러
 타시괴이흔지조를그손으로브러히하시뇨 이마리아의아들목슈
 아니며야고보쓰와요세와이유티아와씩문의형데아니며그누의
 우리와니웃시아니냐하시야이에위하시야거리심을당하시 예수쓰
 - 널너골의샤티아는사름을고향과일가와집안외에는존송하시
 아닌티업는나라하시니라 五 그런고로거괴셔는다른령적을행치안

코오직손으로두어병인을먼저곳쳐주시고 ^六 또흔더의밋지아
 니흠을괴이히낙이샤이에두루모든시골에둔니며 ^七 르쳐더라 ^七
 예수쓰 | 십이문도를불너두명식보내시며점지하여그권이잇게
 하여써잡귀를제어하게하시며 ^八 또흔명하여그집광이외에무숨
 로즈와혹즈루와혹량식과혹금을쥬머니에너히진이지못하게하
 시고 ^九 오직신만신고두가지옷도넘지말나하시며 ^十 또당부하여
 골으샤디무론어는곳이던지사룸의집에드리잇스면너 | 그곳을
 썩나도룩잇스되 ^{十一} 너를붓치지아니며너를좃지아닛는자 | 잇거
 든거괴셔날새네발아래몬지를셔러브러써모든이의게증험을삼
 으라나 | 진실노너드려닐으는니심판하는날을당하여소도므와
 다못고모라의형벌을이고슬에비하면오히려견디여참을만하리
 라하시더라 ^{十二} 데즈들이다가서사룸들이맛당이뉘웃쳐곳칠도를
 전하고 ^{十三} 또흔축귀를만히하며고약으로써병인을발나났게하더

라^{十四} 예수쓰의 날음이 임의 파다 함매 헤로데쓰 왕이 듯고 골으 디 밧
 테 슈마를 항여 주던 요한네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스므로 그런 신
 동훈일이 있다 함며 호은 예리아라 함며 호은 선지샤 라 함며 호
 은 날으기를 넷적에 선지샤 나와 굿다 함되 오직 헤로데쓰는 듯고
 골으 디 이논 임의 버힌 바 요한네쓰 니 제 죽었다 가 다시 살아
 나^{十七} 이몬져 헤로데쓰가 일즉 사름을 보내여 요한네쓰를 잡아 옥에
 가도니 이논 그으 오 펠립 보스의 처 헤로데아스의 연고 라 대개 헤
 로데쓰가 임의 취함였스니^{十八} 요한네쓰 헤로데쓰를 간함여 골으 디
 네형제의 처를 취함이 을치안다 함였더니^{十九} 일노 말미암아 헤로데
 아쓰 요한네쓰를 원망함야 죽이려 함되 죽이지 못함은^{二十} 대개 헤
 로데쓰 요한네쓰의 의인이며 성인인 줄 알고 공경함며 고 호함고
 그말을 드르면 만히 칭함며 또 호듯기를 깃거 함이 러니^三 일일은 못
 침 헤로데쓰의 시일이 라 잔치를 버리고 모든 대부와 천부장 파 밧살

켈라아의 귀인을 청하였더라^{二三} 헤로데아스의 딸이 드러와 춤추매
 헤로데스와 맛곳치안진자^一 | 깃거하니 왕이 딸드려닐너골으되너
 | 무엇시던지 날드려달나흐면나^一 | 반드시너를주리라^{二三} 또호명
 세호여골으되므릇네가달나흐는거손비록내나라반을달난다흐
 여도나^一 | 반드시너를주리라하니^{二四} 딸이나가더의모드려닐너골
 으리나^一 | 무어슬구호면도흐리잇고되답호야골으되맛당이밥데
 슈마를주는요한네스의머리를구할지니라^{二五} 딸아급히드러가왕
 의게나아가구호야골으되청컨디네세주는요한네스의머리를쇼
 반에노화즉시나를주소셔^{二六} 왕이심히근심호나임의명세를호였
 고또호호색안진자^一 | 막지못호게호매^{二七} 왕이드되여회즈슈를호
 령호여요한네스의머리를가져오라하니더희욕에가셔버히고^{二八}
 머리를반에담아가져다가딸을주니딸이그모를주매^{二九} 데즈^一 | 듯
 고시태를가져다가장스하니라^{三〇} 데즈^{三一} | 모도혀예수쓰씨나아

와 늦 늦지 행 하던 바와 무르치던 바로 써고 하니 ^三 예수 쓰 | 날 너 곧
 으샤 되 너 희 무만이 들에 가잠 시쉬라 하니 대개 오고 가는 자 | 만히
 먹을 스이 업습 이라 ^三 임의 비를 듣고 무만이 들 노가 시니 ^三 모든 이
 그가 심을 보고 아는 자 | 만혼고로 각읍으로 조차도 보하 여 흠씩씩
 라와가 신바에 몬져 하 여 모도와 나아 오니 ^三 예수 쓰 | 나오샤 모든
 이를 보시고 민망이 녀이 시니 그 양이 쥬인 업습 곱흠므로 써여 러가
 지도리로 써 무르치더라 ^三 날이 장춧져 물매 그 문도 | 와셔 엿조
 되 여 귀가 들이 오 날이 장춧져 문지라 ^三 맛당이 모든 이를 헛쳐 하야
 곱스면 향촌에 가씩 들이나 사먹게 할 거시니 대개 먹을 거시 업습 느
 이다 하니 ^三 예수 쓰 | 되 답하시 되 너 희가 먹을 거슬 주라 되 답하 되
 우리 이 백금을 가지고 가서씩을 사서 먹이 리 잇가 ^三 예수 쓰 | 날 너
 곧 으샤 되 너 희게 잇는씩이 열마나 되는뇨 너 희가 시 보라 하니 보
 고와 엿조 오 되씩 다 숫과 고기 두마 리 잇습 느 이다 하니 ^三 이에 명하

샤모든이로하야곰져져히잔디우회안지라하시니^{四十一}이에안지매
 후빅인식도모히고혹오십인식도모혀안젧거늘^{四二}예수쓰|썩다솥
 과고기두눗출가지고하늘을우러러축언하시고그썩을뵈여씨문도
 를주어하야곰모든이압희노코또두눗고기으로써모든이게는호시
 니^{四三}다먹고빅부르며^{四三}넘져지가루와넘져지고기를주으니열두
 광쥬리에^{四四}그썩먹은남즈! 오천명이나되더라○^{四五}예
 수쓰|드티여문도를지축하야빅에올나몬져더편언덕에건너가
 벅새다라하느니라모든이들을헛쳐보내기룰기드리라하시
 고^{四六}모든이를헛천후에산에가셔기도하시더라^{四七}임의저물매빅
 논히중에잇고예수쓰|홀노언덕에잇더니^{四八}문도들이역풍에노
 질하기로하야의를미우쓰들보매밤이스경이나하야예수쓰|바
 다흠흠고나아오시되마치지나가랴하듯하니^{四九}모든이그바다흠
 뵈음을보고괴물인가의심하야부르지지니^{五十}대개모든이보고두

려워 흠이라 예수 쓰 | 즉시 더부러 말씀하며 너 곧 샹디 너 회안
 심하라이나 | 니 놀나지 말나 하시고 ^{五二} 이에 비에 올라 오시니 바룸
 이 즉시 자고 모든 이 믿음에 놀남을 이기지 못하며 또 흠이 히 녀이
 니 ^{五三} 대개 모든 이 썩의 괴이 흥행적을 썩듯지 못하니 믿음 이 완행 연
 고 | 러라 ○ ^{五三} 임의 건너 계네 스레 트싸희 니 르러 언덕에 다히니 ^{五四}
 모든 이 임의 비를 썩나 매 사름이 알고 ^{五五} 스방으로 두루 둔녀 상으로
 써 병자를 메 오고 예수 쓰 계신 디를 알면 곳나 아 오매 ^{五六} 므릇 예수 쓰
 의 가신 바혹 촌과 혹 읍니와 혹 향 촌에 모든 병자를 썩저 즈에 두고 다만
 그 옷자락 만든지 물구하야 어루 문지느자 | 나 흠을 었더라

데칠장

바리새 오쓰와 밋션 비수인이 예루살넴으로 부터 와 예수

쓰씩 모든 이나 아와셔 ^二 그 문도 수인이 손을 씻지 아니 하고 썩먹음
 을 보고 칙망하니 ^三 대더 바리새 오쓰 | 유더 아로더 브러 모든 넷적
 칙에 논려움을 가지고 손 씻지 아니 하면 먹지 아니 하며 ^四 저저로 조

차도라와 만일 씻지 못하면 죽 먹지 아니하고 또 혼여러 가지 직 회여 오
 는 법이 잇시니 곳 잔과 구리 그릇과 상을 씻음이러라 五 이에 바리새
 오쓰와 밋션 비뭇즈와 글으디네 문도는 엇지 하야고 인 유전하는 법
 을 준히 치아니 하고 이에 씻지 아니 혼 손으로 써 석을 먹는다 六 예수
 쓰디 답하야 글으샤 리혜사 이또의 션지 자말에 너를 거짓 착 혼자
 라 七 르 쳃시니 진실 노을도 다 척에 닐은 바와 처이 백성들이 너
 으로 만나를 공경하고 그 믿음 인즉 나를 멀니 하는 거시니 七 사람의
 명하는 바로 써 八 르 침을 삼는고로 부절 업시 내게 절하는도다 八 대개
 너 一 상대의 명함을 브리고 사람의 유전함을 잡아 잔을 씻서 이와
 혼거슬너 一 만히 행하는다 하며 九 또 닐넛시되너 一 진실노 상대의 명
 함심을 브리고 너의 유전하는 자를 하는도다 하였시니 十 대개 모세 글
 으디너 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글으디 부를 저쥬하며 모를 저쥬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十一 오직너희는 글으디 사람이

후그부모드려닐으되네가내게밭을거슬나 | 임의골반흐엿다흐
 는니골반은먼역할진대곳레물이라^{十一}이리하고다시그부모를섬
 기지못하게하니^{十二}이눈네밭은바의유전으로써상대의도를폐함
 이니아와갓흔쟈를너 | 만히헿는니라^{十三}하시고^{十四}드되여못사람
 을불너닐너골으샤되너희다맛당이내말을듯고썩드를지어다^{十五}
 므릇사람의것초로브터오는쟈는능히사람을더러이지못하고오
 직그속으로나오는쟈 | 족사람을더러이느니라^{十六}귀잇셔듯는쟈는
 맛당이드를지어다^{十七}예수쓰 | 무리를써나방에드시매그문도 |
 비유로써못조오니^{十八}예수쓰 | 닐으샤되너 | 그리하여도썩듯지
 못하느냐너 | 엿지모르느냐^{十九}므릇밭그로브터사람의게드러오는
 자는능히더러이지못함은^{十九}그므음에못지못하고이에그비에무
 들미오또흔외죽에세쳐그므릇먹엇던바를조출게하느니라^{二十}또
 골으샤되사람브터나가는쟈는곳사람을더러이느니라^{二十一}대더안호로

조차나 음은 곳 사람의 믿음으로조차나오는바 | 니^二 악념과 간음
 과 구합과 흉살^又 혼 것들과^三 도적과 탐람과 악독과 궤사와 방당과
 투기와 비방과 교만과 광패함이니^四 이 모든 악은 다 안흐로조차오
 는 거시니 이에 사람을 더러이느니라^五 예수 | 그리로조차 몸을 니
 르혀 득로 쓰시^六 돈디경에 가샤 혼집에 드러가시되 사람들이 모르게
 하시나 괴일수 업시니^七 이때 혼지어 미잇시되 그 어린 딸이 몹쓸샤
 귀를 들너 잇더니 예수의 일을 듯고 와서 그 발아래 부복하니^八 이지
 어미는 구리시어 사람이니 수로 호니 기사나라 희속 혼자 | 라 예수
 쓰시^九 청하야 귀신을 쫓아 그 딸을 낫게 하니^{一〇} 예수 쓰 | 날
 너 글으샤 디으 히들이 문져 비부르도록 먹기를 기도 릴지니^{一一} 히들
 의 먹는 썩을 갖다가 개에게 더 짐이 올치 아니 타 하니^{一二} 지어 미 디
 답하야 엿조 오 디 쥬여 그러 하니 오나 다 만 밥상아래 잇는 개가 쫓아 오
 히들의 성긴 부스러기를 엿어 먹는다^{一三} 예수 쓰 | 일어서 디이 혼

말을 인하여 너는 가히 도라갈지니 사귀가 임의 네 딸의게 써러졌는
 니라 하시니 ^{三二} 그집에 도라오매 벌셔 사귀가 나가고 딸만 상에 누엇
 심을 써드러 너라 ^{三三} 예수쓰 두로 쓰씨 돈디 경을 써나 딸의 리아바
 다 희이 르러 데카 볼의 쓰디 경안 흘지 내실식 ^{三四} 귀먹고 어를 흘사람
 을 드리고와 거괴 손을 어루문져 달나 하시자 | 앓거늘 ^{三五} 예수쓰 |
 드리고 만이 못사람을 써나가 사손가락으로 써그 귀를 어루문지
 며 춤으로 그 혀를 문지며 ^{三六}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길 ^{三七} 디엠후와다
 라 하시니 번역 흘진대 곳 열니라 흠이라 ^{三八} 그 귀 즉시 열니며 그 밋친
 혀가 풀니며 그 말이 분명히 지라 ^{三九} 예수쓰 | 중인을 경계하시하시
 곱사람의게 낼으지 말나 하시니 경계하시실수록 모든이 서로 전파하
 며 ^{四〇} 모든이 놀납고 괴이 흠을 이기지 못하시야 글으되 그 형하는 바자
 | 다 착하고로 귀먹어라로 하시며 곱듯게 하시며 병어리로 하시며 곱말하
 게 할다 하시더라

데 팔장 - 이새 못사름이 극히 성하야 먹을 거시 업는지라 예수쓰 -
 그문도를 불너 닐너 글으샤 디 - 나 - 이 못사름을 민 말히 녀이 노니
 그날과 갓치 잇기를 임의 사흘이 매이 제 먹을 거시 업슴으로 써라 三
 나 - 먼일 하여 곱주리고 저의 집으로 도라가게 할진 디로 중에 필연
 곤비 하리라 대개 그중에 멀니 셔온자 - 잇는니라 四 그문도 - 디답
 하야 글으 디이 들에 잇서 어 디셔 석을 엇어 비부르게 하리 잇가 五 예
 수쓰 - 무러 글으샤 디너의 덕이 얼마나 잇는뇨 디답 하야 글으 디닐
 곱이다 六 이다 예수쓰 무리로 하여 곱싸의 안즈라 하시고 석닐 곱
 을가지고 죽언 하며 샤레 하고 그문도를 주어 하여 곱논 호라 하시니
 드 디여 못사름 압희 노쇼 七 또 조 곱직은 고기 잇는지라 또 혼 죽언 하
 며 샤레 하고 하여 곱논 호라 하니 八 임의 다 먹고 비부르며 그 늑어 지
 부스럭이 를 주으며 닐 곱치 룡이 오 九 먹은자 - 대강스 천인이라 예
 수쓰 - 이에 무리를 훗치니라 〇 + 드 디여 문도와 흠씩비에 올라 달

마느다 지간에 너니^{十一} 바리새 오쓰들이나 와힐난 하야 하늘노 조
 차아름다 온징도를 주심을 구하야 시험코져하거늘^{十二} 예수쓰 | 중
 심에 탄식하샤 글으샤 디이세상이 엇지아름다 온징도를 구하느고
 나 | 진실노 너의게 닐으느니 결단코아름다 온징도로써이세상을
 주지아니하리라 하시고^{十三} 드디여셔나 다시비에올나 더편인덕으
 로가니라^{十四} 문도 | 석을진임을 닛고비에잇스매 다만석하나만잇
 더니^{十五} 예수쓰 | 경계하야 글으샤 디너의삼가바리새오스의교와
 다못헤로데스의교를방비하라하니^{十六} 데즈 | 서로의론하야 글으
 디이논우리가 석이업다고하심이니잇가하니^{十七} 예수쓰알으시고
 죽시닐너글으샤 디너희엇지석이업슴으로써서로의론하느다너
 희그리하여도아지못하며썩닷지못하니너의 믿음이오히려완만
 하도다^{十八} 너의눈이잇서도보지못하느다귀잇서도듣지못하느다
 또흔귀역지못하느다^{十九} 나 | 석다숫슬뻘여오전인의게는호매너 |

님어 지부스력이 물 주어 몇광 주리에 찻는 뇨글으 디 열들이 니 이
 다^{二四} 또 님 곱썩을 스천인의 게는 호매너 | 님어 지부스력이 물 주어
 몇치 룹에 찻는 뇨글으 디 님 곱이 니 이 다^{三三} 드 디 여 님 너 글으 샤 디 그
 러 하 면 엇 지 썩 닷 지 못 하 는 다^{三三} 옛 재 대 에 니 르 시 매 밍 인 을 드 리 고
 서 그 문 저 주 심 을 구 하 는 자 | 잇 거 늘^{三三} 예 수 쓰 | 밍 인 의 손 을 잡 고
 마 을 밧 괴 드 리 고 나 가 그 눈 에 춤 으 로 바 르 며 또 손 으 로 누 루 고 그 뵈
 이 는 바 | 잇 는 나 무 르 시 니^{二四} 더 | 드 디 여 우 러 러 보 며 글으 디 내 가
 보 니 사 름 의 든 니 는 거 시 나 무 꾀 도 다 하 거 늘^{二五} 후 에 다 시 손 으 로 그
 눈 을 문 지 고 하 여 곱 우 러 러 보 라 하 시 니 드 디 여 나 흙 을 엇 어 윈 갓 만
 물 을 뵈 히 보 는 지 라^{二六} 예 수 쓰 | 보 내 여 그 집 에 도 라 가 라 하 시 며 글
 으 샤 디 마 을 에 드 지 말 며 마 을 가 온 디 잇 는 사 름 의 게 옴 기 지 말 나 하
 시 다^{二七} 예 수 쓰 | 그 데 즈 로 더 부 러 개 이 사 루 야 꺾 입 뵈 모 도 헌 마 을
 노 가 실 시 로 중 에 서 그 데 즈 드 러 무 러 글으 샤 디 사 름 의 말 이 나 를 뵈

라 하더뇨 ^{二八} 디답 하 여 엿 조 디 밥 레 슈 마 툴 베 프 던 요 한 네 쓰 라 도
 하 며 후 은 엘 니 앓 스 라 도 하 고 후 셴 지 자 의 하 나 히 라 도 하 디 이 다 ^{二九}
 이 에 닐 너 곶 으 샤 디 오 직 너 희 는 나 를 뉘 라 고 말 하 는 뇨 베 투 로 쓰
 디 답 하 야 곶 으 디 너 는 크 리 수 도 쓰 니 이 다 하 거 늘 ^{三〇} 예 수 쓰 경
 게 하 야 하 여 곶 사 름 의 게 고 치 못 하 게 하 시 니 라 ^{三一} 이 에 곶 으 샤 디 인
 조 반 드 시 해 를 만 히 밧 어 장 로 와 제 스 와 모 든 전 빅 들 의 브 린 바
 되 고 또 죽 임 을 당 하 되 다 만 사 흘 후 면 바 드 시 다 시 살 아 나 십 을 닐 으
 시 니 ^{三二} 이 말 슘 을 분 명 이 말 하 시 매 베 투 로 쓰 드 디 여 잡 고 간 혼 디
^{三三} 예 수 쓰 데 조 들 을 도 라 보 시 며 베 투 로 쓰 를 쑥 지 립 하 샤 곶 으 샤
 디 사 탄 은 나 의 뒤 흐 로 물 너 잇 스 라 너 는 상 데 의 전 을 몸 밧 지 아 니 하
 고 이 에 사 름 의 정 이 로 다 하 시 고 ^{三四} 드 디 여 무 리 와 다 못 그 데 조 를
 부 르 샤 닐 너 곶 으 샤 디 무 름 나 툴 좃 고 저 흘 진 디 맛 당 이 몸 을 이 괴 여
 그 십 조 가 툴 지 고 써 나 툴 좃 출 거 시 니 ^{三五} 대 개 제 성 명 을 구 로 저 하 는

자는반드시업시하려니와다만나와밋복음을위하야성명을일흔
자는반드시구하리라^{三六}사람이만일던히를엇고저성명을일흔진
디무슴유익함이잇스며^{三七}사람이쟝춧무어스로서제성명을밧고
겻느냐^{三六}대개이간악흔인간에무릇나와밋나의도를붓그럽게아
는자는인즈 | 내부의영화로써모든거룩흔스자로긋치림할쎄에
또흔이사름을붓그럽게하리라

데구쟝 - 예수쓰 | 또닐너골으샤되나 | 진실노너희게닐으느니
여괴션사람이쟝춧죽지아니하고상데나라희권으로림함을보리
라하시고 ○ 二 룩일을지나예수쓰 | 베투로쓰와야고보스와요한
네쓰를거느리시고그만이놉흔산에오르샤그압희게서변화하셔
나 그옷의광치찬란하여빅설긋흐니세상의쌀니흔거스로논이긋
치할수업더라^四 이때에엘니아모세 | 데들의게나타나씨뵈이여
예수쓰로더부러말씀하니^五 베투로쓰 | 예수쓰씨엿저와골으되

스승아 우리가 여긔 잇는 거시요 하니 우리들 노하 여집세 흘지어하
나 혼너를 위하 고하 나 혼 모세를 위하 고하 나 혼 엘리아를 위하 자하
나 ⁶그러나 스스로 날으는 바를 아지 못하 야세 문도 ⁷두려움이 심
하더니 ⁸뭇참구름이 그 리우고 소리 잇서 구름 속으로 부러나와 글
으 되니 나의 사랑하 는 ⁹들이 니너 희는 맛당이 드를 지어 다하 니
¹⁰문도 ¹¹도라서 서보니 흘열이 혼사름도 보지 못하 고 오직 예수 쓰
¹²지귀와 혼가지로 잇슬 짜름이 러라 ○ 산에 는 릴 때에 예수 쓰
¹³경계하 야 글으 샤 디 본 바로 써사름의 게고 처말기를 나 ¹⁴죽음으로
¹⁵브러다사살아 나기 석지하 라 ¹⁶문도 ¹⁷이말을 숨기고 흥씩의 론하
¹⁸되 죽으므로 브러다사살아 난다 하심은 무슴의 스 뜻이 신고 ¹⁹이에
²⁰예수 쓰 썩 못지와 글으 디 션 비들이 말하기를 엘리아 ²¹맛당이 묻져
²²니 르리라 하 였다 하 니 엇지 흠이 니 잇가 ²³예수 쓰 ²⁴디답하 야 글으
²⁵샤 디 엘리아 ²⁶반드시 묻져 니 르려 써다시 모든 일을 진귀 흘 거시오

또 혼척에 인자를 두고 널 너시 되반드시고 초를 만히 밧아 사람의 경
 홀이 너임이 되리라 하였으니^{十三}나 | 진실로 네게 널으노니 엘리야
 ! 밧서 왓스되 못사람이 임의로 되접하기를 척에 그르친 것과 처
 하였느니라 ○^{十四} 임의 그 문도의 게 나 아가시니 사람들 이 돌아서고
 또 혼척들이 더 부러 변론하라^{十五} 여러 혼척 예수 쓰를 보매 심
 히 놀나 압히 추창하야 문안하니^{十六} 예수 쓰 | 선척들의 게 무리 글으
 샤 되너 희들이 혼가지로 변론함은 엇지 미뇨하시니^{十七} 이 중에 혼사
 림이 되 답하 여 엇조 오 되 부조야나 | 나의 아 들 을 드 리 고 네 게 로 가
 다가 제 가 샤 귀의 게 집 혀 병 어 리 되 엇스며^{十八} 무론 어는 곳 이 더 지 잡
 으면 즉 시 너 머 저 침 을 흘 니 며 너 를 갈 아 써 무 르 기 에 너 르 매 나 | 일
 죽 이 네 문 도 를 청 하 야 췌 여 달 나 하 되 제 가 능 히 못 하 더 이 다^{十九} 예수
 쓰 | 답 하 여 글 오 되 밧 지 아 나 하 는 세 상 이 로 다 나 | 너 희 와 곳 처 있
 기 를 밧 당 이 어는 때 서 지 하 며 나 | 너 희 를 참 음 을 밧 당 이 어는 때 서

지하리오 또 흐드리고 내게로 오라 하시니 二四 그 사름이 드되여 드리
고 의셔 임의 예수 쓰씩 뵈으며 샤귀즉시오 구려지며 싸희업드려져
구을며 춤을 흘니니 二五 예수쓰 그아비의게 무러 글으샤되 제가 병
든지얼마나 되었느냐 되답하시엿조오 되조고 마하시실때로 보더
시작하시오니 二六 여러번 불과물에 더져 업시코져 하시엿는 이다 만일너
| 능히 할수잇거든 나를 불상이너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시니 二七 예수
쓰 | 빌너 글으샤되 너 | 만일 능히 밋은즉 밋는히 의게는 능히 못할
거시 업는 나라 하시니 二八 그아비즉시 눈물을 드리우고 불너 글으되
쥬야 밋스오니 너는나의 밋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二九 예수
쓰 | 여러히 추창하시야 모함을 보시고 즉시잡귀를 썩지져 말습하시
글으샤되 너는귀먹고 말 못하느니 귀신이냐나 | 네게 명하시노니 그리
로나가셔 다시드지 말지나라 하시니 三〇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오구
러셔리고 이에나가니 三一 히죽은것갓치 되었스되 사름들이 만히 빌

으 디 제 가 밧 셔 죽 었 다 하 님 더 니 ^{二七} 예 수 쓰 | 그 손 을 잡 아 붓 드 니 세 드 드
 여 머 러 나 더 라 ^{二八} 임 의 집 에 드 러 가 시 매 데 즈 | 종 용 이 못 즈 와 글 으
 디 우 리 는 엇 지 하 여 능 히 쫓 지 못 하 는 니 잇 가 ^{二九} 예 수 쓰 | 닐 너 글 으
 샤 디 만 일 과 도 하 고 벽 곡 하 지 아 니 하 면 이 런 류 는 시 러 금 내 여 보 내
 지 못 하 는 니 라 하 시 더 라 ^{三〇} 이 에 그 곳 을 쟈 나 샤 살 릴 리 아 를 지 나 실
 식 사 름 의 게 알 니 고 자 아 니 하 샤 ^{三一} 데 즈 들 의 게 닐 너 글 으 샤 디 인 즈
 | 장 쫓 사 름 의 손 에 복 치 이 여 죽 일 거 시 오 죽 인 지 삼 일 후 면 더 | 반
 드 시 다 시 살 니 라 하 시 니 ^{三二} 데 즈 들 이 이 말 슘 을 쟈 닷 지 못 하 고 또 흐
 감 히 못 지 못 하 더 라 ^{三三} 예 수 쓰 | 가 펠 나 음 에 니 르 샤 집 에 게 셔 데
 즈 들 의 게 무 러 글 으 샤 디 너 희 중 에 서 서 로 닷 톤 거 시 무 어 시 나 ^{三四} 데
 즈 들 이 목 연 훈 은 로 상 에 서 뉘 가 데 일 큰 이 될 거 슘 닷 톤 이 러 라 ^{三五} 예
 수 쓰 | 안 지 샤 십 이 데 즈 를 불 너 닐 너 글 으 샤 디 머 리 가 되 고 자 하 는
 이 는 반 드 시 모 든 사 름 의 쫓 치 되 고 모 든 사 름 의 하 인 이 되 리 라 하 시

고 ^{三六} 예수 쓰 드되 여호아린의 히를 드려다가 모든 사람 가온되 노코
 또 호안호시고 데즈들의 게닐너 글의 샹디 ^{三七} 므룻나의 일흠으로써
 이곳 든호어린의 히를 접되 호는 이는 곳나를 보내 신이를 접되 호이
 니라 ^{三八} 요한네 쓰 엿즈와 글의 디스승아 우리들이 보니 호사람
 이네 일흠으로써 샹디를 쫓치나 제가 우리들을 쫓지 아니 호매 우리들
 이금 호엿스오니 그우리를 쫓지 아니 흠을 위함이 니이다 ^{三九} 예수 쓰
 | 글의 샹디 금호지 말나 대개나의 일흠으로써 령적을 행호면 참아
 엿지나를 경멸호고 비방호겠는 나 ^{四〇} 므룻나를 치지 아니 호는 이는
 우리를 향호는 이오 므룻나의 일흠을 의탁호여 호잔물노너를 먹임
 은네 크리수도 쓰에 속흠을 인함이 니 ^{四一} 나 | 진정으로네 게닐의는
 니더 | 반드시 상밧음을 일치아니 호리라 ^{四二} 므룻나를 밧는 적은
 히를 죄에 빠지게 호는 이는 출하리 밧돌을 목에 미여 바다히더 짐이
 도호니 ^{四三} 만일네 호손이 죄에 빠지게 호거든 곳순허브릴지어 다출

하리 변신으로 댕당에 들지 언딩 두손을 가지고 디옥의 멸치 아니
 는 불에 들지 말지라 ^{四四} 거괴잇스면 버레도 죽지 아니 하고 불도 멸치
 아니 하는 나라 ^{四五} 만일 네 혼발이 죄에 빠지게 하는 곳 쓴 허브
 어 다출하리 절며 댕당에 들지 언딩 두발을 가지고 디옥의 멸치 아니
 하는 불에 들지 말지니라 ^{四六} 거괴잇스면 버레도 죽지 아니 하고 불
 도 멸치 아니 하는 나라 ^{四七} 만일 네 혼이 죄에 빠지게 하는 곳 쓴 허브
 린지어 다출하리 혼으로 댕당에 나아갈지 언딩 두눈을 두고 디옥
 불에 더지지 말지니라 ^{四八} 거괴잇스면 버레도 죽지 아니 하고 불도 멸
 치 아니 하는 나라 ^{四九} 대개 사름마다 반드시 불노써 저리며 제물마다
 반드시 소금으로 써 저리는니 ^{五〇} 저리는 거시 토커니와 다만 소금이
 제맛슬 일흐면 엇지 써 저리 오너 희속에 도 소금이 잇스리니 맛당
 이서로 화합할지니라

데십장

예수쓰 | 니러나샤 그리로 조차요 단 밧그로 가서 유딧야

디경에니르시니 못사름이다시모혀들매 예수쓰 | 다시여상이
 르치실식^二바리새오쓰들이잇셔 예수쓰를 시험코져 하여나아와
 못즈와골으^三디사름이안히를브림이가하니잇가^四 디답하야골으
 샤디모세엇덧께너희게명하엿더냐^四 그사름들이모세의전하는
 글을써주어브리기를허락하니이다^五 예수쓰 | 디답하야골으샤디
 너희모음이모질므로너희를위하야이명을쓰섯거니와^六 다만키
 벽하던처음에상데점지하샤남녀를문드르시니^七 일노인하야사
 림이맛당이부모를써나고그안히와의합하야^八 들이흐몸이될지
 니이러하면다사들이아니되고이에흐몸이되는니^九 그러하즉상
 데가짜흔이는가히는호지못할거시니라^十 집에계시매데즈 | 다
 시이일노써못즈온디^{十一} 예수쓰 | 닐너골으샤디무릇안히를브리
 고달니쟝가드^{十二} 이는는음형을범함이오^{十二} 안히지아비를브리고키
 가하는이도또흔음형을범하는니라^{十三} 어린으히를드리고예수

쓰되나 아와 어루만져달나흐는자 | 잇거늘 데즈 | 드리고 온이를
 취하니 ^{十四} 예수쓰 | 한번 보시고 잇거 아니흐샤 닐너 글으샤 디어린
 으히나 게오는 거슬 ㄴ 만이 두고 금흐지 말나 대개 상데 나라 희잇는
 이는 정히 이 사람 ㄴ 하니 ^{十五} 나 | 진실 노너 희개 닐으는 니 므릇 어린
 으히 ㄴ 지 아니흐고 상데 나라 흘밭드는 자는 시러곰 드지 못흐는 니
 라 하시고 ^{十六} 이에 안고 그 우희 손을 다히시고 축언하시더라 ○ ^{十七} 임
 의 길희나 오시니 흐사람이 잇셔 압희 추창흐야 꾸러 못즈 오디 착흐
 스승님 아내가 맛당이 엇지흐야 야장싱 불스흙을 엇으리 잇고 ^{十八} 예
 수쓰 | 닐너 글으샤 디너 | 엇지흐야 나를 착흐다 닐것는 나 상데 외
 에는흐나 도착흐이 엇는 니라 ^{十九} 너 | 모든 명을 아는 다 음난 치 말며
 살해치 말며 도적질 말며 헛밍세 말며 불의로써 사람의 게취치 말며
 네 부모를 공경흐라 흐엿는 니라 ^{二十} 디 답흐여 글으디 스승님 아이는
 나 | 어러로 브터 다직 희엿는 이다 ^{二十一} 예수쓰 | 도라 보시고 사랑흐

야닐너골으샤되너 | 오히려흐가지가부족하니가셔네게잇는거
 슬프라써간난흐이의게구제하면반드시지물을하늘에둔거시오
 또흐와셔십자가를질머지고나를좃치라하시니 二三 그사름이말씀
 을인하야안식이추연하야가니이논그지산이만흠이러라 二四 예수
 쓰 | 도라보시며데즈드려닐너골으샤되지물잇는자 | 상데나라
 희들기어렵도다하시니 二五 데즈 | 그말씀을이상이너이더니예수
 쓰 | 다시닐너골으샤되사랑하온아들들아지물을밧고상데의나
 라희들나하면어렵도다 二六 약되가바늘귀로나가는거시오히려부
 즈상데나라희들기에셔더욱쉬오나라하시니 二七 데즈 | 더욱피이히
 녀여서로닐너골으되그러흐즉누능히구하심을엇을고하니 二八 예
 수쓰 | 더들을보시고골으샤되사름으로논진실노능히못하거니
 와오직상데로논능히못할바 | 업느니라하시니 二九 베투로스 | 엿
 즈오되우리들은임의원갓거슬내여노코너를좃노라하시니 三〇 예수

쓰디답^ㅎ야골으샤^디나 | 진실노^네게^닐으^느나와^밋복^음을^위
 하야^집이며^혹형^데며^혹즈^미며^혹부^모며^혹쳐^즈며^혹던^답을^써나
 는^이는^금세^상에^서집^과형^데와^즈미^와모^즈던^답을^빅빅^나더^엇
 지^아닐^이업^고혹^세상^에장^성을^엇는^일이^잇스^리니^대개^압섯^던
 자^뒤가^되고^뒤섯^던자 | 압^될이^가만^하리^라 ○ 예^루살^넴에^올나
 가^실때^에길^희셔^예수^쓰 | 모^든이^압희^거러^가시^니데^즈 | 쓰^라갈
 셔^놀나^며또^흐두^려워^하니^예수^쓰 | 다^시십^이데^즈를^드리^시고^장
 찾^즈고^몸의^당홀^일노^써닐^너골으샤^디우^리들^이예^루살^넴에^올
 나^가면^인즈 | 장^찾제^스의^제장^과밋^션빅^들의^게맛^기이^여더^들이
 죽^이기^로써^당하^고또^흐장^찾이^국인^의게^맛겨^주며^더 | 장^찾릉
 옥^하며^미로^치며^춤바^트며^죽일^거시^로디^다만^데삼^일에^반드^시다
 시^살나^라하^시더^라체^비디^오스^아들^야고^보스^와요^한네^쓰 | 나
 아^와골으^디스^승아^우리^구하^느바^를하^실진^디너 | 우^리를^위하^야

히히쇼셔 예수쓰 | 널너 글으샤 디날드려너 희를위하야 무어솔
 히하라하느나 디답하야 글으디 우리들을네 영화로올때에하나
 혼네우편에안치고하나 혼네좌편에안쳐주소셔 예수쓰 | 널너
 글으샤 디네구하느바를너 | 알지못하리라나의마시던잔을너 |
 능히마시며나의밧던밥테수마를너 | 능히밧을손나 디답하야
 글으디 능히하리이다 예수쓰 | 널너 글으샤 디나의마시던진은너
 | 진실노장춧마실거시며나의밧던밥테수마를너 | 진실노장춧
 밧을거시나 다만나의좌우에안침은내가줄거시아니오다만이
 위를임의마련하여노흐신이가주리라하시니 열데즈 | 듯고야
 고보스와요한네쓰를도화아니하거늘 예수쓰 | 불너널너 글으
 샤 디너 | 이국에놉혀님금된이가쥬장하며큰이가다스림을아는
 나 다만너희중에서논이긋치함이가치아니하니금이되려하느
 이는반드시네의부리임이될거시며 너희중에머리되려하느이

는 반드시 모든 의 하인이 될지니 ^{四五} 대개 인조의 날의 심은 사람을
 부리심이 오이에 사람의 게부리이고 또 혼산혹숨을 노하여려 사람
 을 위하여 속량함이니라 ^{四六} 예리고에 니르러 예수쓰 | 데즈와 밋여
 러 무리 흠씩 예리고에 서나 오시니 쇼경바디 매오스는 디매오스의
 아들이라 길그 희안져 구걸하더니 ^{四七} 나쟈레트 사람 예수쓰 | 라 흠
 을 듯고 즉시 불너 글으 디 짜빛드의 즈손 예수쓰는 나를 불상이 너이
 쇼셔하니 ^{四八} 여러 사람이 썩지져 입을 담을 나흔 디그 사람이 더욱 크
 게 불너 왈 짜비드 즈손 너 나를 불상이 너이 쇼셔하니 ^{四九} 예수쓰 | 머
 므르시고 사람으로 하여곰 브르시니 사람이 드 디여 쇼경을 브르며
 닐너 글으 디네 믿음을 편안이 하고 니러 나라 예수쓰씩 서너를 브르
 신다 하니 ^{五〇} 쇼경이 옷 슬브리고 니러 나 예수쓰씩 나아 오니 ^{五一} 예수
 쓰 | 닐너 글으 샤 디너 | 날드려 무어 슬하고 저하는 나 쇼경이 디답
 하야 엿즈 오 디 주어 나 | 보기를 엿고 저하는 이다 하니 ^{五二} 예수쓰 |

닐너 글으샤 디갈 지어 다네 밋음이너를 쾌히 낫게 하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봄을 엿어 예수 쓰를 길히 서 좃치니라

데십일장 - 예루살렘에 갔가와 임의 벳바게에 니르러 벳다니아에

밋쳐 왓니 온산이 갔가 오매 예수 쓰 - 데즈 두 사람을 보내시며 二 말
숨호여 왕너 - 더넘어 읍니에 가서 겨유드러 가면 반드서적은 나귀
삭기를 믿거슬 만나리니 아모도 든 사람이 엽스리라 글너서 쓰을고
오라 三 만일 사람이 너드려 엿지 그리 흠을 못논이 잇거든 즉시 글으
디쥬 - 구호신다호면 그 사람이 반드서 보내여 가져오게 하리라 호
시니 四 데즈 - 가본즉 과연적은 나귀 문밖 두길스이에 미이엿거늘
즉시 가서 설으니 五 것히 두어 사람이 섰다가 닐너 글으 디나귀를 설
너무엇호려호는 호호거늘 六 데즈 - 예수 쓰의 명호신대로 디답호
니그사람들이 허락호거늘 七 이에적은 나귀를 쓰을고 예수 쓰씩가
서제 옷슬 그우희언고 예수 쓰 - 두시니 八 여러사람들이 잇셔 낚엇

던 옷 스로써 길 희 샅며 혹 나 모 가 지를 쳐 길 희 펴고 九 압 희 서 고 뒤 희
 쓰 르 며 호 창 호 여 글 으 디 호 산 나 흘 사 쥬 의 일 흠 을 의 탁 호 여 오 는 이
 는 복 이 로 다 十 우 리 조 상 싸 빛 드 나 라 쥬 의 일 흠 을 의 탁 호 여 오 는 이
 는 복 이 로 다 호 산 나 이 지 극 훈 우 희 계 신 이 의 계 잇 는 이 라 호 더 라 十一
 예 수 쓰 一 예 루 살 념 에 나 아 가 샐 던 에 드 러 가 샐 모 든 물 건 을 들 너 보
 시 고 임 의 저 물 매 십 이 데 즈 를 드 리 시 고 나 와 벳 다 니 아 에 니 르 시 니
 라 〇 十二 이 든 날 벳 다 니 아 를 쥬 날 식 예 수 쓰 一 식 장 호 샐 十三 멀 니 무 화
 과 나 모 의 님 히 잇 슴 을 보 시 고 나 아 가 샐 혹 그 우 희 가 히 엇 을 거 시 잇
 솔 가 호 엇 더 나 아 가 서 보 시 매 다 만 님 스 귀 만 잇 스 니 대 개 열 므 익 을
 썩 가 되 지 아 니 흠 이 러 라 十四 예 수 쓰 一 나 무 다 러 닐 너 글 으 샐 디 이 제
 후 로 는 사 름 이 네 열 므 를 먹 을 이 업 스 리 라 호 시 니 데 스 들 이 다 드 르
 니 라 〇 十五 임 의 예 루 살 념 에 니 르 샐 예 수 수 一 던 에 드 러 가 던 에 계 서
 모 든 무 역 호 는 자 를 쥬 치 시 고 돈 밧 는 자 의 문 서 상 과 밧 합 도 풍 는 자

의 고 괴를 업지르시며 또 한 제구를 가지고 던중으로 지나지 못하
 게 하시고 이에 이르러 처닐너 글으샤 디척에닐으지 아니하였더냐
 짐은 반드시 만국의 기도하는 집이라 닐거든 거시어 늘 오직 너희는
 도적의 보금 자리를 삼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선비와 밋제스
 제 장들이 이 일을 듣고 엿지 써 죽일고 췌하니 대개 두려워함이 모든
 이 그 교를 신기히 여기는 연고를 인함이러라 ○ 임의 저물어 예수
 쓰시 성에나 아와 잇튼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며 보니
 췌이로 브터 말넛 거늘 베투로 쓰는 성각하고 엿자와 글으디 부즈
 야 청컨대 보쇼셔너 | 저췌 바 무화과 나무가 밧셔 물넛는 이다 하
 니 예수 쓰시 닐너 글으샤 디너 | 맛당이 샹 데를 밋을지니라 三 나
 | 진실노 너드려닐으느니 모르티 산을 명하야 옴겨가셔 바다의 더
 지이라 하며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에 말한대로 반드시 되리라
 밋은즉 그 말한대로 반드시 되느니라 四 나 | 이런고로 너드려 말하느

니 기도 할 때를 당하야 무어 슬구 흠을 의론치 말고 그가 히엇을 줄 노
 밋은즉 반드시 엇으리라 ^{二五} 네가 서서 기도 할 때에 만일 사름으로 더
 부러 혐의 잇거든 맛당이 푸러 준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도 또한
 네 허물을 푸러 주시느니라 ^{二六} 만일 네가 푸러 주지 아니 할 디경이면 너
 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또한 네 허물을 푸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
^{二七} 예수 쓰 | 다시 예루살렘에 니르샤던에 거니시더니 제스제장과
 선비 장로들이 나와 무리 곁으 디네 무스권으로 써이러게 하며 뉘
 가 너를 이권을 주어 가히 이를 행하게 하뇨 ^{二八} 예수 쓰 | 디 답하야 곁
 으샤 디나 | 또 흐흐 말노 써네게 무르리 너 | 내게 디 답하면 나 | 무
 슴권으로써 이를 행함을 네게 닐으리라 ^{二九} 요한네 쓰의 밥테 수마를
 하늘 노 조차는 다 사름으로 좃 찾는다 너 | 내게 디 답하라 하시니 ^{三〇}
 그 사름들이 7 만이 서로 의론하야 곁으 디 만일 하늘 노 좃 찾다 하면
 더 | 반드시 곁으 디 그러면 너 | 엇지 밋지 아니 하시느냐 할 거시오 ^{三一}

만일 사름으로 좃 찾다 하면 백성을 두려워 하느니 백성들은 다 요한
네 쓰로써 침션지자 | 라 흠이라 하고 드디여 예수 쓰괴 디 답하야
골으 디 우리 들은 모르 노라 하니 예수 쓰 | 닐너 골으 샤 디 그러하
면나 | 무 슝 권으로 써 이를 힘 힘을 또 흐네 게 닐으 지아 니 하리 라 하
시 니 라

예십이장 - 예수 쓰 | 비 유로써 여러 사름의 게 말 슝 여 골으 샤 디
흐 사 립이 잇서 포도 원을 심으 고 올라 리로써 두루 고 술 만드느 들을
노코 랫을 세우고 월 두한 의 게 도 지 주고 드 디 여 원 방에 갓 다가 二 때
밋치 매 흐 하 인을 보내 여 원 두한 의 게 맞 당이 밧을 포도 실 과 를 밧으
려 하 였 더 니 三 원 두한 이 잡아 썩 려 하 여 곰 그 저 도 라 가 게 하 고 四 다
시 다 른 하 인을 보내 여 나 아 가 니 원 두한 이 돌을 더 저 그 머 리 를 상 하
야 하 여 곰 옥을 보고 가 게 하 며 五 또 흐 하 인을 보내 니 원 두한 이 죽 인
지 라 후에 하 인을 만 히 보 내 니 원 두한 이 후 치 기 도 하 며 후 죽 이 기 도

호고 ^六 오히려귀호여호는아들호나히잇는지라못춤내보내며성
 각호되더 | 반드시내아들은디접호리라호였더니 ^七 그원두한들
 이서로말호디이논그아들이니오거든죽이면그산업이우리게도
 라오리라호고 ^八 드디여잡아죽여동산밭과브렸더니 ^九 동산쥬인
 이장춤차니르러원두한을멸호고동산을다른이의게맞기니 ^十 성
 서에닐넛시되장인브린돌이집모퉁이에머리돌이되게호리니 ^{十一}
 이논쥬씩셔일운바 | 내눈에잇셔괴특함이되리라호니너 | 일죽
 이니리지못호였느냐 ^{十二} 그사람이예수쓰가이비유를베푸려써조
 괴를그르치심을알고잡고져호나모든사를둘러워호야드디여
 그져나아가니라 ^{十三} 후에바리새오스들과다못헤로데쓰의당이
 두어사람을보내여나아와그호시는말슴을쓰라읽으러호시 ^{十四} 오더
 니엿조오디스승아우리들이너를진인으로보오니대개네가얼골
 노써사람을취치아니호시고진심으로써샹데도를전호는지라세

를자썩오쓰썩맛침이맛당호오리잇가^{十五}드리리잇가드리지아니
 호오리잇가예수쓰그간샤함을알으시고닐너골으샤디너^一엇지
 나를시험호느냐금전호나홀나를갓다주어보게하라호신대^{十六}드
 디여가져오거늘예수쓰^一닐너골으샤디이화상과조호^一뉘뇨여
 러히디답호여골으디자썩오쓰니이다^{十七}예수쓰^一닐너골으샤디
 자썩오쓰의물건은자썩오쓰의게도라보내고상대의물건은상대
 썩로도라보낼지니라호시니그사람들이이상이너이다^{十八}사구
 기오스^一사람이잇시니이^二는말호기를다시살미업다호는자^一라와
 서못조와골으디^{十九}스승아모세골노우리의게뵈여닐넛시되만일
 사람의형데죽으매쳐만잇고아들이업거든그형데중에그쳐를취
 호야조손을세워넛게하라호엿느냐^{二十}형데철인이잇는디맛이쳐를
 취호야조식이업고죽으매^{二二}그들재취호야또호조식이업시죽고
 그셋재도또호그러호야^{二三}이러케닐골사람이취호야다조식이업

고그 후부인도 또 혼죽으면^{二三} 다시 살때에 너러이 계집이 누계집
 이 되리 잇가 대개그닐곰사를이다엇엇는이다^{二四} 예수쓰디답하야골
 으샤디너희성셔와다뭇상대의 조화를모르논고로이리흠이니엇
 지그르지아니하냐^{二五} 대개죽은후로조차다시살때에논장가도아
 니들고식집도아니가고하늘에잇논스즈곳하냐^{二六} 죽은자^一 다시
 살물론난홀진대너의모세글에극중편에실어노흔바를너지못하
 였느냐즉시상데모세를명하샤골으샤디나는곳아부라함의상데
 오잇츠하크의상데오야고부의상데라하냐^{二七} 므릿신은죽은이의
 신이아니오산이의신이니이런고로너희그름이심하니라^{二八} 혼션
 비앗셔와다가그서로하논슈약을듯고또혼예수의디답하심이다
 연흠을보고이에뭇즈와골으디무어시모든계명중에웃듬이되리
 잇가^{二九} 예수쓰^一 디답하야골으샤디모든계명웃듬에하였시되이
 스라엘아드르라주는곳우리들의신이라혼쥬^一 시니^{三〇} 너^一 맛당

이 믿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야쥬며 곳너
 희신을 사랑 하라 하였시니 이웃에게 명이오 그 다음도 또 한 그와
 곳치 맛당이 남을 사랑 하기를 제 몸 곳치 하라 하였시니 계명이 이들
 에서 더 큰 거시 잇지 아니 하니라 선비들이 옛 조와 글이 더 기록 하
 시도 소이다 스승님이 여네 말이 진실 노을 혼지라 대 더 신은 다만 하
 나 히시고 그 외에 다른 이 업시니 믿음을 다 하며 뜻을 다 하며 힘을
 다 하며 사랑을 하거시오 또 한 남을 제 몸 곳치 사랑 하면 곳희 성을 굽
 고 제 스승이 에서 나 흐리이다 하니 예수 쓰 그 썬로 써 더 답 함
 을 보시고 닐 너 글이 사 더 네 천국이 머지 아니 하도 다 하시니 일 노 브 러
 감히 못논 이 업 더 라 ○ 예수 쓰 一 던 에서 二 르 쳐 말 습 하 여 글이 사
 더 선 비 들 이 었 지 크 리 수 도 를 써 빛 르 의 조 손 이 라 말 하 논 고 대 더
 써 빛 르 一 성 령 에 감 동 하 야 스 스 로 말 하 여 글이 더 쥬 一 우 리 쥬 드 려
 닐 이 시 더 나 의 올 혼 편 에 안 자 내 가 네 적 국 을 노 아 네 발 도 듨 하 논 등

상을 만 들 기 를 기 드 리 라 하 셧 다 하 니 ^{三七} 므 롯 싸 빛 르 | 임 의 크 리 수
 도 스 를 닐 크 러 주 | 라 하 였 신 즉 크 리 수 도 스 | 엇 지 하 야 싸 빛 르 의
 조 손 이 되 리 오 하 시 니 모 든 사 름 이 다 듯 기 를 즐 거 워 하 더 라 ○ ^{三八} 예
 수 쓰 | 마 르 치 실 때 또 흐 모 든 이 드 려 닐 너 곁 으 샬 디 부 디 셴 비 들 을 방
 비 하 라 더 희 긴 옷 슬 닐 고 놀 기 를 도 화 하 며 저 조 우 희 셔 문 안 밧 기 와
^{三九} 회 당 의 눙 흔 위 와 좌 중 의 눙 흔 자 리 에 안 기 를 도 화 하 나 ^{四十} 그 러 하
 나 과 부 의 가 산 을 삼 겨 거 쯤 거 스 로 긴 괴 도 를 하 는 테 하 니 그 죄 밧 음
 이 더 옥 중 하 리 라 ○ ^{四一} 예 수 쓰 | 고 집 을 향 하 야 안 지 샬 모 든 이 금 으
 로 써 고 에 더 짐 을 구 경 하 시 니 모 든 부 자 | 만 흔 금 을 더 지 는 이 도 잇
 시 며 ^{四二} 가 난 흔 과 부 | 두 령 다 곳 일 리 를 더 지 난 이 도 잇 시 니 ^{四三} 예 수
 쓰 | 드 디 여 데 조 들 을 불 너 닐 너 곁 으 샬 디 나 | 진 실 노 너 희 게 닐 으
 는 니 이 가 난 흔 과 부 의 더 진 거 시 여 러 히 고 에 더 저 너 흔 것 보 다 더 만
 흐 니 ^{四四} 대 더 여 러 사 름 은 쓰 고 눙 는 거 스 로 더 지 거 니 와 오 직 이 과 부

는 그가 난 하야 업는 거스로 써 다 더 지니 즉 시제의 원통가 산이 나라
데실삼장 예수쓰 | 던에나 실시흔데즈 | 잇셔엿즈와글으디스
 승아브소셔이돌이엇더흐오며이집이엇더흐오니잇가 | 예수쓰 |
 닐너글으샤디너는이집의큰것슬보는나쟝찾들흐나흘돌우희노
 코무너지지아니흠이업스리라 | 예수쓰 | 엘니온산에게셔던을
 향하야안져게시더니벳투로스와야고보스와요한네쓰와안뤼아
 스 | 그만이못즈오디 | 청컨디우리들의게닐너주소셔어는때에
 이거시잇스오며또흔이일이다못치려하면무슴징도 | 잇스오리잇
 가 ^五 예수쓰 | 디답하야글으샤디너는헝혀사름의게혹흔바 | 되
 지말지니라 ^六 대더쟝찾여러사름이나의일흠을거젯닐것고와셔닐
 너글으디내가크리수도스로라하야만흔사름들을혹하게할거시
 오 ^七 또흔싸호는것과싸호는쇼문을듯거든두려워말나대더이일
 이반드시잇슬거시로디다만마지막의한은니르지아니하엿는니

라 八 장춧빅성이니라 나빅성을치고또훈나라히나라출치며도쳐
에반드시디진이잇고또훈흥년과변난이잇스리니이거시고로움
의시작이니라 九 너희맛당이스스로삼갈지어다사람이장춧너를
공회에쳐치으며너를회당에서싸릴거시오또훈너희장춧나의연
고로호여왕후의압희잡히가셔싸증거가되려니와 + 다만복음을
반드시몬져만국에전할거시오 + 또훈쓰으려너를잡아갈새에몬
져엇더케말되답할고념너말며또훈미리상량호지말고다만그새
에너희게주신바대로만싸라말을할거시니대더네가스스로말호
는거시아니오이에성령이시니라 + 二 형데장춧형데를죽이기에쳐치
호고아비가조식의게또훈그리호며조식이장춧너러나부모를쳐
셔죽이기에니르며 + 三 너 | 장춧나의일함을위호야여러사람의게
위위함을볼거시니다만호상참기를나종사지니르느야는구호여
좁을엇으리라 + 四 너 | 만일빈터만되어즉시션지자다니엘말호바

와 곳치서 지아니 할곳에 선거슬보거든 너는 자니 맛당이 생각하여
이때에 유디아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하고 ^{十五} 짐우희 있는 자는 방에
느러오지 말며 드러가서 물건을 쓰어 내지 말며 제집에 나가고 ^{十六} 밤
희잇는 자는 옷슬가질너도라가지 말지니 ^{十七} 이때에 희비고젓먹
이는 자니 불행하리라 ^{十八} 다만너희맛당이 기도하여 겨울에도 망하
기를 면할거시니 ^{十九} 대대이날 장춧환난이잇시되 샹데가설시하시
므로 이와곳함이 업고 후에도 또 할잇지아니 하리니 ^{二十} 만일 주씩서
조곰이날을 감하시지아니 하섯다면 무릇 혈귀잇는 자는 구함을 얻
을이 업슬거시언마는 다만그싸신바간 선자를 위하샤이날을 조곰
감하신거시니 ^三 이때에 만일너드려말하논이엇서 글오디보라크
리수도스가여귀잇다혹더귀잇다하여도너희고지듯지말나 ^三 대
더장춧거춧크리수도스와거춧선지자니 ^四 내려나서 신귀함을 보여만
일가히간 선자를 혹할만하면 혹할거시니 ^三 너희맛당이 스스로삼

갈지어다나 | 다너드려닐으는니 ^{二四}이때를당하야이환난후에는
히가어둡고들이빛치업고 ^{二五}하늘의별이써러지고하늘이진동하
고 ^{二六}이때에장춧인즈 | 큰권세와큰영화로구름을두고오름을모든
이볼거시니 ^{二七}이때에반드시그스즈를보내여그간선자를싸앗츠
로브러하늘썩사지스방에서모출거시니 ^{二八}이제무화과나무의비
유를비화보야흐로그가지부드럽고넘히밍동하거든하절이갓가
온지알거시니 ^{二九}이와곳치너 | 이런일이잇슴을보거든그때가갓
가온지알나이에문에밋친거시니라 ^{三〇}나 | 진실노너희게닐으는
니이때가가지아니하여서이일이다일우리니 ^{三一}런디는반드시업
솔지언덩내말은반드시업서지지아니할지라 ^{三二}다만그날과그시
는아는사람이업스리니하늘에잇는스즈와아들도또흐아지못하
고다만아버니알으시는니라 ○ ^{三三}조심하여써여기도할거시너
희그과약을모로미라 ^{三四}므릇인즈는비컨디사람이그집을멀니써

날 때에 권을 그 종의게 주어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직이를 명하여 써여
 스라^{三五} 너는 이런 고로 맛당이 썰지어 다 집주인이 어는 때 혹 저물게
 나 혹 밤중이나 혹 늦을 때 나 혹 북을 때에 니를 지 모르니^{三六} 저허한 건
 디 그 졸디에 니르러 너 희잠들 말당 할 가^{三七}는 니^{三七} 나의 이제 너의게
 말하야 자를 또 하 써여 러 사람의게 니를 줌은 곳 써는 거시니라

예십사장

다음 이른 날은 유월절이라 제효절일에 제스제장파션

비들이 케 흘 흘 썩로써 예수 쓰를 잡아 죽임을 게교 할 식^二 다 만 글^三
 디 절 일 에 는 못 할 거 시 빅 성 이 난 을 널 가 두 렷 다 하 더 라 ○^三 예수 쓰
 벧 다 니 아 에 게 서 창 병 가 진 썩 몬 이 란 사 름 의 집 에 자 리 를 살 고 안
 저 진 지 잡 스 오 려 흘 식 하 녀 인 이 잇 서 옥 합 에 다 가 갑 업 시 귀 하 날 또
 란 기 름 을 가 지 고 와 옥 합 을 썩 치 고 기 름 을 예 수 쓰 의 머 리 에 부 으
 니^四 두 어 사 름 이 잇 다 가 깃 거 아 니 하 여 글 으 디 엇 지 이 런 기 름 을 헤
 피 쓰 는 고^五 이 거 슬 풀 면 썩 나 레 를 삼 빅 개 나 늻 아 엇 을 거 시 니 글 노

씨가 난 흔사 림들을 구제 할 거 시라 호고 드 디 여 나 물 호 니 ^六 예수 쓰
 一 글으 샐 디 ^七 만 이 두 어 라 웨 민 망 호 게 호 는 나 제 착 흔 공 덕 을 내 게
 행 호 는 거 시 니 라 ^七 므 룯 가 난 흔 사 림 은 호 상 너 의 와 ^八 치 잇 손 죽 너
 의 잘 보 아 주 려 호 면 아 모 션 라 도 호 려 니 와 다 만 나 는 호 상 너 의 와 ^九
 치 잇 지 아 니 호 리 라 ^八 더 지 어 미 는 제 능 할 만 흔 대 로 호 야 미 리 나 의
 몸 에 기 름 을 발 나 씨 장 스 흠 을 예 비 흠 이 라 ^九 나 一 진 실 노 네 게 닐 으
 는 니 윈 려 하 에 무 론 어 는 곳 이 던 지 이 복 음 을 전 호 매 또 흔 반 드 시 이
 지 어 미 의 행 흔 거 술 을 녀 씨 기 록 흠 이 되 리 라 ^十 십 이 데 즈 중 에 흔 낫
 이 시 가 리 오 트 유 다 쓰 一 제 스 제 장 씨 나 아 가 예 수 쓰 를 잡 아 더 희 를
 주 려 호 니 ^{十一} 더 들 이 듯 고 깃 거 호 여 돈 을 주 기 로 허 락 호 니 유 다 쓰 一
 드 디 여 예 수 쓰 를 엮 더 케 잡 아 줄 기 희 를 찾 더 라 ^{十二} 제 호 절 데 일 일
 유 월 절 에 염 쇼 를 잡 을 때 에 데 즈 一 예 수 쓰 씨 엮 즈 와 글으 디 너 一 날 드
 러 어 디 가 셔 준 비 호 여 너 로 호 여 금 유 월 절 잔 처 를 지 내 게 호 라 호 니

잇고 ^{十三} 예수 쓰 | 두 데 즈를 보내시며 닐너 글으샤 디너 | 성에 드러
가면 물흐 병길어 인사를 맛날 거시너 | 쓰라가 ^{十四} 어 디던 지그
사름 드러 가는 집에 가서너 | 그 집 주인 드러 닐너 닐으 디스승이 닐
으시 되샤 사랑이 어 디 잇는 뇨내가 데 즈 들을 드리 고 거 괴셔 유월절음
식을 먹겟다 하시더라 ^{十五} 더 | 필연포진하 여 둔 큰루를 그르치
고 거 괴다가 우리 들을 위하야 예비하리라 하시너 ^{十六} 그 데 즈 | 드 디
여 입성하 여 과연 그 말씀 하시던 대로 맛나셔 유월절음식을 차리더
라 ○ ^{十七} 임의 저 들 때 예수 쓰 | 십이 데 즈와 곳치너 르샤 ^{十八} 안져 음식
하실 시 때에 글으샤 디너 | 진실 노너 희게 닐으리너희 중 한 사람
의 날과 곳치음 식 먹는 자가 장춧나를 풀니라 하시너 ^{十九} 데 즈 들이 근
심하야 일일이 차례로 못즈와 글으 디이 내니 잇가 ^{二十} 닷 답하야 글으
샤 디 열 들 중에 하나히 날과 곳치 밥그릇에 손을 딛자 | 니라 ^{二十一} 인 즈
| 장춧도라 갈시척에 그르 친대로 되려니와 다만 인 즈를 혼자논 화

양이잇스리니그사름이나지아니터면다형일번하엿다하시고^{二三}
 먹을때에예수쓰^一떡을가져축연하시고떡여데즈들을주시며골
 으샤디갓다먹으라이게즉내몸이로다하시고^{二三}또한잔술을가져
 축연하신후에또한데즈들을주어다들마시게하면서^{二四}예수쓰^一
 닐너골으샤디이거시즉나의피니곳언약을세우는피를모든이위
 하야흘닌거시라^{二五}나^一진실노너희게닐으는나나는상데나라새
 거술마시기전에는다시포도나무에서난거술마시지아니리라^{二六}
 임의노래를창하신후에엘니온산에가샤^{二七}예수쓰^一데즈들드려
 닐너골으샤디이밤에너희다날노하야넘어짐을당할거시니대개
 칩에닐너스되나^一장춧양기르논이를쓰린즉뭇양이장춧히여지
 리라하엿시니^{二八}내가다시살아논후에장춧너희보다몬져살릴리
 아에잇스리라하시니^{二九}벧루로쓰^一엿즈와골으디뭇사름은비록
 넘어질지라도나는반드시그러치아니하리이다^{三〇}예수쓰^一닐너

골으샤 디나 | 진실 노네게 날으는니 오날곳이 밤중에 들이 두화울기
 전에너 | 장춧삼츠를나를비반하리라 베투로쓰 | 굿세계말하
 야골으디곳너와흠씩죽을지언딩못참내나는비반치아니하겠는
 이다하고여러사름의말도또하하그와긋치하더라 | 하곳에니르니디
 명은겝세마나이라예수쓰 | 데즈들드려닐너골으샤 디너희는나
 의괴드홀동안희여괴안지라 드디여베투로쓰와야고보쓰와요
 안네쓰를드리고하가지로게실시무셔워하고답하샤말슴하여
 골으샤 디내므움이초민흠이죽기에니르렀시너희는여괴셔기
 드리고또하하셔여잇스라하시고 조곰나가짜희업디여빌어골
 으샤 디혹가히홀만하사거든이때에면하하여주소셔하며 또
 골으샤 디부여부여능히못하실거시업스신지라이진으로써내게
 썩나가게하여주소셔비록그러하오나나의하고져흠을조참이아
 니라이에너의하고십음을조참이니이다하시고 드디여물너와

데즈들이 잠들면 보시고 베투로 쓰드러 말슴하시여 글으샤 디시문아
 너ㅣ 자는 나 너ㅣ 편지를 써여 잊지 못하겠는 나 ^{三八} 써여 비는 거 손 유
 감에 드러 감을 면함이니 ^{三九} 믿음은 진실 노원하시니 와 육신이 약하도
 다 하고 ^{三九} 다사 가서 기도 하실셔 또 환전과 곳치 말슴하시고 ^{四十} 임의
 도라 오샤 데즈들을 보시니 다시 잠이 드렸시며 눈들이 썩고 흠을 인
 함이 나 엇지 디 답할지 몰나 하더라 ^{四一} 데삼츠는 오시더니 날 너 글으
 샤 디 이제는 가히 잠들자고 또 환안심할 거시니라 다 되었다 뼈가 왓
 다 인즈ㅣ 죄인의 손에 맞기 임을 보리로 다 ^{四二} 니러나 곳치 갈져 어다
 나를 잡아 줄자ㅣ 갓가 이 왓도 다 하시더니 ○ ^{四三} 말슴할 때에 즉시 열
 두 데즈 중 한 유다 쓰ㅣ 잇다가 무리와 곳치 칼과 몽동이 틀가지고 제
 스제장과 선비 장로의 게로 브터 오니라 ^{四四} 예수 쓰를 공는 자ㅣ 일즉
 군호를 주어 글으 디 내가 남을 맞초는 자ㅣ 그 사람이 니 잡아 든든 든
 이 잡아 두리 하라 하였더니 ^{四五} 임의 니르매 즉시 예수 쓰의 게 나 아와라

비라비라하면서 남을 갖다가 다히니 ^{四六} 무리 드터여 예수 쓰씩 손을
 거위잡을시 ^{四七} 겹히섯던 사람중에 흔사람이 잇다가 갈흔씩혀 제스장
 의 하인을 쳐그 귀를 삭그니 ^{四八} 예수 쓰 | 무리 드터 말슴하여 곧으되
 너희나를도적잡듯기 갈과다 못몽동이 를가지고와서나를잡느나
^{四九} 내가날노너희와긋지던에서 ^{五〇} 르쳐도너희나를잡지아너하엿
 거니와그러나성서에 기록흔바 | 라반드시 못초임을엇으리라하
 시니 ^{五一} 데즈들이 드터여 다브리고드라날시 ^{五二} 나절문사람하나히
 잇셔벌게벗고뵈흔니 불을두루고 예수 쓰를삭라가니 군스중에절
 문자가잡거늘 ^{五三} 드터여 뵈흔니 불을내여 브리고드라나더라 ○ ^{五三}
 무리에수쓰를잡아가지고 제스장압히니 르니 그곳에 제스제장과
 장로와 선비 다모헿더라 ^{五四} 베투로쓰는 멀니 예수 쓰를 좃차 제스제
 장의 원에 드러와 모든 아전들과 흡씩 화티 불에 불을 쏘이더라 ^{五五} 제
 스제장과 밋원공회에 서 증거를 구하야 예수 쓰를 무함하야 죽이고

저 할지 할수 업시니 ^{五六} 대개 여러 사람들 이잇서 허망 할 증거 로써 무
 합 할지 증거 할는 거시 합 할지 아니 할지니 ^{五七} 나 종에 두어 사람이 잇
 서 니러나거 쯔 증거 로써 무 합 할지 글으 디 ^{五八} 우리 일즉 제 말을 드른
 즉 일즉 널으 디 이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시 어니와 내 가장 찾 할
 어 브리고 사 할만 에 별 다른 게 할던을 세우 리니 이 거 손 사람의 손으
 로 지은 거시 아니 라 할지 더 라 할지 ^{五九} 그것도 쯔 할 증거 가 닷치 아니 할
 지라 ^{六〇} 제 스 장이 할가 온 디 서서 예수 쓰의 게 무 러 글으 디 너 디 답 할
 거시 업는 나 이 사람이 증거 를 삼아 너 를 치 문 엇 지 미 노 ^{六一} 예수 쓰 무
 연 할고 디 답 지 아니 시니 제 스 장이 다시 무 러 글으 디 너 가 히 찬 송
 할 올 자 의 아 들 크 리 수도 나 ^{六二} 예수 쓰 글으 샤 디 그 러 할지 너
 장 찾 인 지 전 능 할 신 자 의 올 흔 편 에 안 자 하 늘 에 구 름 을 드 고 올 올
 보 리 라 할지 시니 ^{六三} 제 스 장이 손 으로 제 웃 슬 썌 즈 며 글으 디 우리 다 른
 증거 할지 여 무 엇 할지 오 ^{六四} 임 의 네 설 만 할는 말을 드 렷는 지라 너 의 썌

시엇더하뇨 못사름이의론하야 죽일죄로결단하며 六五 후춤도밧트
 며그노흐를그리오고쓰리며글으되너는시험하야말하라고모든
 하인도또흐손으로쓰리더라 六六 베투로쓰는하원에잇더니제스쟝
 의흐게집하인이니르러 六七 베투로쓰가불쑥임을보고눈치하야글
 으되너도또흐본리나자레트사름에수쓰와흐씩둔니던쟝이라하
 거늘 六八 베투로쓰비반하야글으되나논아지도못하고또흐네가
 무어시라하논지모로노라하고드되어나아와문침하에니르니북
 이우더라 六九 또흐게집하인이보고겻히선사름드려말하야글으되
 더도그당의하나히라하니 七十 베투로쓰아또흐비반하더니조곰잇
 다가겻히선쟝아베투로쓰드러닐너글으되네가진실노그당의하
 나히니대개너논이에살릴리아사름이오또흐방언도역시긋다하
 니 七一 베투로쓰아저주하야명제하야글으되이네가말하논바사름
 을나논아지못하노라하니 七二 돕이즉시두번재울거늘베투로쓰아

예수 말씀이 들이이츠를울기전에네가장춧세번을나를비반하리라
하심을싱각하고통곡하더라

예십오장

— 불기에제스제장과장로선비원공회로더브러호가지

로써하고예수쓰를동혀미고쓰으러바로벨나도쓰의게가니 二 벨
나도쓰 | 무러골으디너 | 유디아인의왕인다디답하야골으샤디
네가말하엿도다하시니 三 제스제장이여러가지로써힐난하거늘 四
벨나도쓰 | 다시무러골으디너 | 못츨내디답지아니하느냐네가못
사람의이긋치여러가지로써증참하야치느거솔보라하되 五 다만
예수 | 못츨내디답지아니하느니라벨나도쓰 | 괴이하너이더라
六 절일을당하면의례이호죄인을샤하되못사람의구함을좃차놓
는법이러니 七 호사람이잇시되일홈은바라바스니역적파호가지
로결박하야가도앗시니이논역적질할때에살인호이라 八 못사람
이소리를질으며전례대로히하기를구하거늘벨나도쓰디답하여

글으되 너희 날드려 유대인의 왕을 노하라 하니 + 대개 제스
 장들이 시끄�음을 인하여 예수 쓰를 잡아 온 줄을 알미라 + 제스 장들
 이 못 사람을 부추겨 바라싸스를 노화 달나고 벨라도 쓰의게 하라 하
 니 + 벨라도 쓰 + 되 답하고 다시 말하여 글으되 그러하면 닐온 바유
 다인의 왕이란 자를 날드려 엿지하라 하니 + 묘 사람이 다시 웨여 글
 으되 십자가에 못박을 지어다 + 벨라도 쓰 + 말하여 글으되 무슴 연
 고 + 노더 사람이 무슴 악흔 일을 하였느냐 못 사람이 더욱 웨여 글으
 되 십자가에 못박을 지어다 하니 + 벨라도 쓰 + 빅성들을 진정코져
 하야 바라싸스를 흔편으로 노코몬져 예수 쓰를 치로치고 내여 십자
 가에 못박으라 하니 + 군스 + 쓰을고 원으로 드러가니 이곳은 공령
 이라 드되 여 일영을 모호고 + 홍포로 써 예수 쓰를 낚히고 가시나무
 로면 류관을 문드라 씨우고 + 예수 쓰 씨문안 하야 글으되 유대아인
 의 왕은 평안 하시니 잇가 하며 + 또 흔갈되 로써 그 머리를 치며 그 몸

에 춤밧트며 무릅 흘살고 절하며 二四 희롱하기를 못치매 흥포를 벗기
 고 낚엇던 옷슬 낚혀 쓰으러 내여다가 십즈가 에 못박을시 二五 구레네
 사름씨몬이 잇시니 곳아렉산즈로 쓰루호오쓰란 사름의 어룬이니
 식골셔오는 길에 지나가더니 여러 사름이 억지로 예수쓰의 십즈가
 를 질머지우고 二六 예수쓰를 드려 흔곳에 니르니 이곳은 겐고 디라하
 는 디니 번역 할진대 히골곳이라 말이라 二七 몰약으로써 술에 두셔 먹
 으라고 주거늘 예수쓰 一 밧지아니 하시고 二八 십즈가 에 못준 후에 예
 수쓰의 의복을 논홀시 제비를 문드라누가 었을고 썩아 보더라 二九 때
 가 임의 진시가 지나매 십즈가 에 못박고 三〇 그 명패 우희 썼시되 유디아
 인왕이라 하였고 三一 밧지도적 들홀 못박엇시니 하나흔 그 우편에 잇
 고 하나흔 그 좌편에 잇시니 三二 성서에 날은 바사름들이 범죄 할것
 고 하나흔 그 가온 디 잇는 이 디 답하리라 흠이라 三三 지나가는 자
 비방하며 머리를 흔드러 글으 디 슬프다 네가 던을 헐고 사할만에 다

시세우는 자니 ^{三三} 지금 맛당이 제 몸을 구하여 십자가로 조차하려
 올거시니라 하고 ^{三四} 제사장들이 선비로더 브러비웃기를 또 할 이와
 못하야 서로 말하여 골으되 ^{三五} 더니 다른 사람은 구하되 제 몸은 구치
 못하논고나 ^{三六} 이스라엘의 왕 크리스도 쓰논이 제 맛당이 십자가로
 조차하려와 우리로 하여곰 보고 밋게 하라 하고 못박혀잇는 자
 니 ^{三七} 또 흘욕하더니 ^{三八} 오시중으로 브러미시 말에 니르도록 싸히어 들
 더니 ^{三九} 미말에논 예수쓰니 크게 소리하여 골으되 엘노이 엘노이라
 마사 박다나이라 하고 번역하면 곳우리상대여우리상대여너니
 지나를 브러니니 잇가하논말이라 ^{四〇} 것히섯던엇던 사람이듯고 골
 으되 더니 ^{四一} 엘의아를 브러다하니 ^{四二} 흘사람이 잇다가 급히가서 히용
 에다가 젖국을 뜻쳐갈디에 묵거다가 마시우며 골으되 아직 만이
 두고우리들이 시험하야 엘의아가와셔느려주나 보자하더니 ^{四三} 예
 수쓰니 크게 소리하여 흘번 브러고 드되여 괴절하시니 ^{四四} 三년에 젖던

장막이 우희셔 브터 아래 서 지 써 어 저 두 조각에 나는 지라 ^{三九} 빅부장이
 이압희섯다가 이긋치곤 소리에 괴절함을 보고 곧 으 디 이 사람이 상
 데의 아들이 참이로다 하더라 ○ ^{四十} 두어부녀 멀니셔 구경홀식 그 중
 에 막달네네 마리아과 밋쇼년야고보쓰와 다만 요세쓰의 마리아과
 다 못살노메란 지어 미들이 잇시니 ^{四一} 곳예수쓰 | 샅릴리아에게 실
 때에 되셔 섬기던 자 | 오또 혼여러 지어 미잇시니 곳예루사름에
 치올나왔던 자 | 러라 ○ ^{四二} 이날은 이에 비절하는 날 이러니 곳사
 데날 전일 일인 고로 저물 때에 ^{四三} 아리마야 사람의 존귀 혼 전 비 잇
 시는 지라 이는 상 데국을 앙모하는 자 | 니 일 혼은 요세크 이라와셔
 의 연이 벨나 도스를 드러 보고 예수쓰의 시 테를 달나하니 ^{四四} 벨나
 도쓰 | 예수쓰 | 임의 죽음을 이 상이 녀여 드 디 여 빅부장을 불너 예
 수쓰 | 죽은 지 오랜 가 무러 보고 ^{四五} 빅부장의 말을 듯고 안 후에 시 테
 로 써 요세크의 게 내여 주니 ^{四六} 요세크 | 뵈를 사다가 시 테를 느려 령

하야 반석 스이에 폰 무덤에 장스 하고 돌으나 흘묘문에 구을녀다가
막아 노핫시니 막달네나 마리아과 밋 요세쓰의 모마리아이다 예
수쓰를 어디 두는지 보니라

데십륙장 - 사바트날이 지나매 막다네네 마리아과 다만 야고보스
의 모마리아과 밋 살노메 향속을 사가지고 와서 그 시테에 발나드리
려 하여 二 칠일 첫날에 붉아히 돛을 때 무덤에 갈제 三 서로 말하여 글
으 디 누가 우리를 위하야 묘문에서 돌을 구을녀 주리오 四 대더그 돌이
대단 이 큼이라 하더니 브라본 즉 돌이 밋서 움겨 노헛고 五 무덤에 드
러 갈 때 흘절문이 우편에 안자긴 흰 옷 슬넙은 거슬 보고 이상 이 녀이
니 六 그 절문 사람이 말하여 글으 디 이상 이 녀이지 말나 너희들이 십
즈가에 못박히셨던나 자리 트예 수쓰를 찾는다 더 一 밋서 내려나서
여기 잇지 아니하니 다만 시테를 못엇던 곳을 보라 七 다만 가서 그 데
즈들과 밋베투로 쓰게 말하되 예수쓰 一 너희보다 몬져 살리리아로

가섯시니귀괴셔가히그말하던대로보리라 八 지어미급히나와무
 덤으로서브러달음질하야놀나설고또흐사람의게도무셔워닐으
 지못하더라 ○ 九 칠일첫날북을떼에예수쓰 一 임의다시살아나시
 매몬져막다네네마리암의게나타나되시니일즉이지어미의게닐
 곱귀신을떼여주신더라 + 지어미가셔전에되시고지내던사람들
 의게전하니이때사람들이슬피우더니 + 여러히예수쓰가다시살
 아그지어미의게보섯다흐을듯고밋지아니하더니 + 그후그사람
 들중에두사람이식골에가는길에예수쓰 一 열골을곳치시고더의
 게보이시매 + 두사람이가셔그눔은사람의게고하니눔은사람들
 도또흐밋지아니하더니 + 그후열두데즈들안진자리에예수쓰 一
 더들의게보이시며그밋지아니흐과다못므음들이완흐을쑥지
 시니그다시살으신후보왓다흐을밋지아니흐이러라 + 예수쓰 一
 닐너골으샤되너희들이원련하로든니며복음을만민의게전하야

가다시살으신후보왓다흐을밋지아니흐이러라

예수쓰

十六 밋고 밥데쓰마를 밋은 자는 구하여 줌을 엇고 밋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덩홀 거시며 十七 밋는 자는 맛당이 괴이 혼자 최잇서 좃칠 거시니
 곳나의 일흠을 의탁하야 귀신을 쫓치며 장춧이 국말을 능히 말하며
 十八 비암을 죽이거나 독약을 마셔도 해가 업슬 거시오 병인의 게손을
 디면 병이 반드시나흐리라 ○ 十九 쥬이 더희로 더브러 말슴하시기를
 밋치고 드디여 하늘에 오르샤 샹데 우편에 안지시니 二十 데즈들이
 스방으로 나가 교를 퍼매 쥬이 이에긋치도으샤 괴이 혼즈 최로써그
 도를 징험케하시다 아멘

